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8월

석사학위 논문

국어의 외래어 조어법과 의미변이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지혜

국어의 외래어 조어법과 의미변이
연구

A Study on the Word Formation and the Semantic Variation
of the Loanwords in Korean Language

2013년 8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지혜

국어의 외래어 조어법과 의미변이 연구

지도교수 석 주 연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 지 혜

정지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옥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2013 년 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 방법 및 내용	2
1.3. 선행 연구	4
2. 기본적인 논의	8
2.1. 외래어의 조건 및 범위	8
2.1.1. 외래어의 조건	9
2.1.2. 외래어의 범위	11
2.2.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과 의미변이	12
2.2.1.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	12
2.2.2. 외래어의 의미변이	16
3.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	20
3.1. 절단어화	20
3.1.1. 첫 부분 절단어	20
3.1.2. 끝 부분 절단어	22
3.2. 약어화	26
3.3. 합성	28
3.3.1. 합성어 유형 I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	29
3.3.2. 합성어 유형 II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	31
3.3.3. 합성어 유형 III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	33

3.4. 파생	35
3.4.1. 접미 파생어	37
3.4.2. 접두 파생어	41
4. 외래어의 의미변이	46
4.1. 축소	46
4.2. 이동	50
5. 결론	54
참고문헌	57

<ABSTRACT>

A Study on the Word Formation and the Semantic Variation of the Loanwords in Korean Language

Jeong Ji Hye

Advisor: prof. Suk, Joo yeon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mid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civilization in today's era, language contact is a natural phenomenon. As more and more words are borrowed from another language, the number of loan words is rising in Korean vocabulary system. In order to understand it properly, understanding and studying the loan word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explored the formation of loan words in modern Korean language and the phenomenon of semantic shift that causes the loan words to be used with different

meanings from the original ones. Chapter 2 of this thesis presents the criteria and concept of loan words with ‘concept in a broader sense’ by treating both loan words (words borrowed directly from another language) and foreign words (words used in another language) as loan words.

Chapter 3 examines the formation of loan words in accordance with Korean vocabulary system by categorizing it into ‘partial substitution’, ‘abbreviation’, ‘compoundedness’, and ‘derivation.’ ‘Partial substitution’ was divided into substitution of the beginning and substitution of the ending. For ‘abbreviation,’ words that are combined with only one syllable from the boundary of morphemes of words consisting of two or more morphemes were examined. ‘Compoundedness’ was analyzed with the following divided types: ‘radix of loan words + radix of loan words,’ ‘radix of chinese characters + radix of loan words,’ and ‘radix of native words + radix of loan words’. ‘Derivation’ was divided into ‘suffix derivation’ and ‘prefix derivation’ and criteria for loan words affix was set to explore the following two types: combination with affix of loan words; combination with affix of chinese characters and radix of

loan words.

Chapter 4 explores the semantic shift of loan words with the following two types with detailed examples and usage: ‘reduction’ that borrowed part of original meanings; ‘shift’ that completely changed the original meaning of loan words in Korean language.

As described,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loan words in Korean language with focus on their formation and semantic shif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and verified the various aspects of recently-created loan words, along with semantic shift in Korean language. It is perhaps natural that more and more loan words are being added to Korean language, given the increasingly frequent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Therefore, more in-depth studies on loan words need to be carried out as to their semantic and morphological aspect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차용된 국어 외래어를 중심으로 외래어의 조어법과 외래어의 의미변이 현상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과 같이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물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래어 차용은 불가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 차용은 여러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국어에서도 오늘날 외래어 차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국어의 어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차용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차용된 외래어는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차용하는 쪽 언어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구조에 맞게 조정된다. 이러한 어휘는 그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적, 사회적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외래어는 대부분 새로운 문물과 개념을 나타내는 단일어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국어의 어휘 체계에 맞춰 절단되거나 고유어나 한자어와 결합하여 파생법, 합성법으로 새로운 형태의 외래어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외래어의 수용 양상에 따라 국어에 포함된 외래적 언어 요소의 조어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외래어가 보이는 새로운 조어 방식과 사례들을 보다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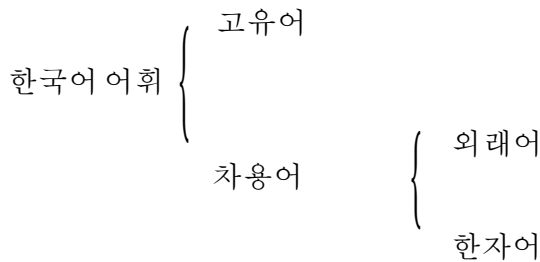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과 언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보 접촉 기회의 확대 등으로 외래어의 차용 과정에서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 또는 이동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외래어 차용으로 어휘가 풍부해지기도 하지만 의미변이로 인해 의미의 혼동이 초래되거나 의미가 새롭게 생성되기도 한다.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외래어뿐만 아니라 외래어의 형태적 변이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도 적신호가 일어나기도 한다. 외래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외래어의 의미변이 현상도 본고의 고찰 대상이다.

본고에서는 외래어의 조어법상 특징과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 안의 외래어가 원어와 달리 국어 안에서 어떤 의미로 변이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도 고찰해 보겠다.

1.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어휘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인지 연구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술했듯 외래어의 조어법과 의미변이를 살펴보는 연구의 기초 단계로 우선 외래어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외래어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외래어를 ‘어떤 말이 국어 어휘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김세중(1992: 52)에서 학력 수준, 외국어 선호 경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와 외래어 모두를 외래어로 보았다. 김세중(1998: 12)에서는 외래어를 국어 어휘 중에서 외국어에 기원을 둔 말로 고유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았다. 노명희(2009)에서는 본래부터 한국에서 쓰였던 것을 고유어라 하고 남의 나라말에서 들어와 국어의 일원이 된 것을 차용어라 하며 차용어에는 한자어와 외래어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중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것은 한자어라 보고, 원어의 발음대로 읽어서 들여온 것을 외래어로 보고 있다.¹⁾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어 어휘 체계(노명희 2009: 7)

본고에서는 폭넓은 외래어에 관한 연구를 위해 김세중(2001)과 노명희(2009) 논의에 근거하여 국어 어휘 중 본래부터 한국어에 쓰였던 것을 고유어라 하고 한자로 표기되며 한국 한자음(東音)으로 읽히는 것을 한자어라 부르고 남의 나라말에서

1) 중국에서 들어온 말일지라도 원어 발음대로 읽히는 ‘라조기(辣椒鷄)’는 외래어가 되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학교(學敎)’는 한자어가 된다.

들어와 국어의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외래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외래어 조어법을 논하는 데 있어 단어 형성의 재료로 외래어 요소가 포함되는 한 그러한 조어 현상 역시 외래어 조어법 현상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즉,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한자어 접사 + 외래어 어근’, ‘한자어 어근+ 외래어 접사’와 같은 한자어 요소가 포함된 조어의 세 유형도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의 외래어 어휘는 고려대에서 편찬한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에 등재된 어휘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어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17년에 걸친 연구와 편찬의 성과로서 전임 교수와 연구원·편수원을 합하여 35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실린 총 39만 7,000여 개 표제어 중 4만 1,000여 개는 지금껏 어느 국어사전에도 오르지 않았지만, 실생활에서는 널리 쓰이는 외래어 신조어를 추가로 담고 있다.

외래어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예문의 경우 ‘국립국어원 말뭉치’에서 발췌하였다. ‘말뭉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대표성과 균형성을 갖춘 전자 텍스트들의 집합으로(강범모 2003: 123) ‘말뭉치’를 이용한 연구는 내성이나 직관보다는 언어사실에 기초를 둔 기술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김진해 2006: 78). 또한 말뭉치 기반 연구는 외래어가 현대 국어 어휘부에 통합되면서 변이된 형태·의미 면을 보다 사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과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외래어 용례를 중심으로 ‘말뭉치’의 예문과 ‘신문기사’의 예문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외래어 사용양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외래어가 현대 국어에서 조어되고 있는 현상과 외래어가 원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의미변이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외래어 조어법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줄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단어’, ‘약어’와 기존의 단어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합성’, ‘파생’으로 분류하였다. 기본적으로 ‘말뭉치’를 기반으로 조어되는 양상을 살펴보겠지만, 비규범적인 인터넷 용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검색되지 않는 외래어의 경우 인터넷 신문기사와 실제 인터넷상에서 조어되는 모습을 통해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외래어 의미변이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의 외래어 의미와 『한영대사전』(2001)에서의 원어의 의미를 비교하여 외래어 원어의 의미 중 한 가지의 의미만 차용되어 사용되는 ‘의미의 축소’, 외래어로써 사용하게 될 때 원어로서 가

지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의미가 굴절되는 ‘의미의 이동’ 등으로 나누어 의미변이 현상을 살펴보겠다.

장별로 본고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외래어의 개념을 알아보고 외래어의 범위와 조어법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설정한 외래어 범위 안에서 수집한 외래어를 3장에서는 조어법 현상에 맞게 분류하고 예문들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 등을 중심으로 외래어의 의미변이 현상을 살펴볼 것이다.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산물로서 모든 사회, 역사적, 사회·문화적 현상이 반영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외래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외래어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져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3장과 4장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 안에서 최근 조어된 외래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미변이 현상도 함께 고찰하여 국어 속 외래어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한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1.3. 선행연구

국어학 연구에서 외래어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정희원 2004).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 조항으로 제6장 ‘외래어 표기 규정’이 명시된 것을 보면, 국어의 어문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조항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외래어에 대한 논의가 그 전후로 하여 국어에서 본격적인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외래어 조어법을 기술한 논문으로는 이광호(1997), 김미라(2003), 이윤미(2005), 강탈리아(2008), 노명희(2009), 노명희(2012) 등이 있다.

이광호(1997)는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형성법을 한자어 단어형성법과 비교·대조하면서 외래어 요소가 국어 단어형성에서 보이는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국어 체계 내에서 외래어 요소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어 단어형성에 참여한 외래어 요소는 한자어와 같이 [+Foreign]의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한자어와의 결합이 생산적이며, 외래어 요소와 한자어는 형태적 특성과 단어형성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미라(2003)는 영어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수용될 때 한국식으로 만들어진 사례를 고찰하면서 왜곡된 한국식 및 일본식 단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영어의 형태를 변질시키는 유형과 영어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운미(2005)에서는 서구 외래어 및 외국어의 축약과 생략 어형을 준말과 혼효어로 나누고, 그 유형을 음운론과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축약에서 생략의 개념을 정리했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융합되거나 한 음운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보고, 축약형 준말을 모두 이에 포함했다. 그 다음으로 축약형 준말은 고유어와 동일한 축약 현상을 보이는 것과 고유어와 다른 서구의 음절 음운 체계 때문에 축약된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생략형 준말인 두자어와 혼효어의 합성어로의 의미 관계와 파생어와 결합 관계가 유사한 파생적 합성어로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강나탈리아(2008)에서는 국어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한 외래어 요소의 특징을 조어법적 측면에서 밝혔다. 단어형성의 기술을 위해 어간, 어근 어기 또는 접사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단어형성 유형을 합성법과 파생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서 외래어의 접사 선정 기준을 정한 후 선정된 외래어의 접두사와 접미사는 다음과 같다.

(1) ㄱ. 접두사: 켜-, 넷-, 미니-

 나. 접미사: -맨, -이즘, -니스트, -텔, -틱, -팅, -토랑, -티즌, -깡, -파라치

노명희(2009)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방송언어 자료와 신어 자료를 대상으로 외래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단어형성 과정을 밝혔다. 이 논의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외래어에 대한 지식 증가로 그동안 신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던 지위를 점차 외래어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한자어와 외래어는 그 유입 과정이 다르지만, 국어에서 정착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단어형성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노명희(2012)에서는 외래어가 국어 어휘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변화 현상들에 주목하여 이를 문법형태의 생략, 절단에 의한 삭감, 접두사의 단어화, 품사의 변화 등으로 나눠 고찰하였다. 문법 형태가 생략되는 경우로는 ‘선글라

스(← sunglasses), 샐러리맨(← *salaried* man), 오픈 게임(← *opening* game)과 같이 복수형이나 과거 분사형, 동명사형 어미 등이 생략되는 예가 있다. 절단 때문에 원어의 형태가 삭감되는 경우는 ‘아마(아마추어)’처럼 단일어의 일부가 절단되는 예와 ‘셀프(셀프서비스)’처럼 합성어의 일부가 절단되는 예가 있다.

다음으로 외래어 의미변이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최명숙(1997), 송혜정(2007), 박지현(2008)이다. 특히 최명숙(1997)은 외래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였고, 의미 변화 유형을 비로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외래어 관련 연구에서 의미 변화를 다룬 부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명숙(1997)의 분류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명숙(1997)은 Lyons의 심리주의 의미론과 Ogden & Richards의 의미의 삼각형, de Saussur의 기호이론, Trier의 장이론의 의미변화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를 대상으로 의미변이의 유형을 의미 분화, 의미 결합, 의미 영역의 변화, 의미 가치의 양화²⁾, 약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가설을 세우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밝혀진 외래어의 의미변이의 내용을 실제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송혜정(2007)은 외국어가 외래어로 정착하면서 원어로부터 어떤 유형의 의미변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일상생활 관련 외래어 113개의 사전적 의미를 원어의 사전적 의미와 비교함으로써 의미의 지속이 이루어진 경우와, 의미영역이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중복된 경우, 그리고 의미 영역이 새롭게 전이된 경우를 각각 분류하였다. 그러나 사전의 의미를 토대로 한 것이기에 의미 제시에 기본이 될 수 있으나 송혜정(2007)이 일상생활 외래어 어휘 중심으로 연구한 만큼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지현(2008)은 국어에서 자리매김을 한 영어 차용어와 고유어나 한자어의 동의 관계를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이동, 가치의 중립, 가치의 하락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명하였다. 신문, 잡지, 소설, 드라마, 영화 대본 등에서 예문을 발췌하여 그에 해당하는 동의어들을 교체하는 대치 검사를 통해 고유어나 한자어와 영어 차

2) 인간의 생활 방식, 심리상태, 사고방식, 가치관 등과 시대적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 언어의 의미가 양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고유어, 한자어로 말할 때보다는 외래어로 말할 때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되어 상대적으로 외래어는 원래 지니고 있던 의미보다 의미가 양화되었다고 한다(최명숙 1997:57). 그 예로 ‘타올 - 수건’, ‘레스토랑 - 식당’, ‘룸 - 방’이 있다.

용어의 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관성이 높은 의미 성분 분석을 통해 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예문을 통한 대치 검사로 객관성을 높여 이해도가 높은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외래어의 조어법과 의미변이에 대한 연구는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논의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특히 외래어 의미변이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있었지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 등재된 어휘,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어휘, 말뭉치 예문과 인터넷 신문 예문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과 의미변이 현상 전반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기본적인 논의

이 세상에서 다른 문화와의 교섭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온 문화의 예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와의 교섭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온 언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신항 1988: 14). 다만 어느 정도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어를 자국어로 유입하는가에 따라서 자국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직후 다수의 외래어의 필연적 유입은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특히 영어 어휘들은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외래어로 이미 국어 내에서 위치를 구축하여 국어 안에서 활발히 조어법에 참여하고 의미변이 현상에도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다.

2.1. 외래어의 조건 및 범위

기원전 108년 한사군 설치 이후 중국과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우리말에 들어온 한자어를 제외하면 외래어의 대다수는 근대에 서양으로부터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어에 가장 많이 들어온 외래어는 영어를 비롯하여 서양에서 들어 온 단어들이다. 영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셈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은 일본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광복 후에도 일본어의 영향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단어가 무척 많이 사용되었다. 양과 대신에 ‘다마네기’, 바지 대신에 ‘쓰붕’, 방석 대신에 ‘자부동’ 등 수 없이 많은 일본어 단어가 쓰였다. 광복 67년이 더 지난 오늘날은 그런 일본어가 대체로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쓰이고 있는 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우동, 양꼬’ 같은 말들이 그러하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하였는데 영어 단어가 국어 속으로 꾸준히 유입되었다. 서양말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대체로 영어에서 들어왔다고 보아도 좋을 만큼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 많다. ‘라디오, 버스, 택시’ 등이

다 영어에서 차용된 말이다. 오히려 영어 아닌 말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빠를 정도이다.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로 최우수상을 뜻하는 ‘그랑프리’, 어떤 분야에 처음 나옴을 뜻하는 ‘데뷔’, 미술에서 소묘를 뜻하는 ‘데생’, 꽃다발을 뜻하는 ‘부케’, 천장에 매달아 드리우는 등불대를 가리키는 ‘샹들리에’, 식당을 뜻하는 ‘레스토랑’ 등이 있다. 독일어에서 들어온 말로는 ‘아르바이트, 깁스’ 등을 들 수 있다. 이탈리아어에서 들어온 말은 ‘안단테, 아다지오, 알레그로’ 등 음악 용어가 많이 있다. 그 밖에 우리가 먹는 ‘빵’은 포르투갈어에서 들어왔고 ‘빨치산, 페치카’ 등은 러시아어에서 들어왔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어휘를 차용하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외래어’, ‘차용어’, ‘귀화어’, ‘외국어’ 등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외래어의 외연 또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외래어의 조어법과 변이 현상을 연구하기에 앞서, 과연 외래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며, 외래어라는 개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디까지를 외래어의 범위로 봐야하는 것이며, 무엇을 외래어라고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다. 먼저 외래어의 범위와 개념을 정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의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1.1. 외래어의 조건

외래어의 조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 이희승(1941), 김민수(1973), 이승명(1982), 임홍빈(2008), 노명희(2009)를 살펴보자.

이희승(1941)은 외래어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순수한 외국어가 아닐 것, 둘째, 음운 법칙에 의하여 귀화한 것이라야 할 것, 셋째, 충분히 일반화되었어야 할 것을 들고 있다. 이는 외국어가 우리말에 들어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여야 외래어라는 것으로 오늘날 외래어 정의의 토대가 되었다.

김민수(1973)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것, 둘째, 수입되어야 할 것, 셋째, 제 국어 속에 들어와야 할 것, 넷째, 사용되어야 할

것, 다섯째, 단어라야 할 것. 이와 함께 외국어가 우리말에 귀화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첫째 단계는 외국어라는 인식이 뚜렷한 단계, 둘째는 차차 익숙해지면서 두루 쓰이게 되고 생소한 의식이 없어지는 단계, 셋째는 외국어라는 의식조차 없어지고 우리말로 여기게 되는 단계, 넷째는 국어에 아주 융합되어서 고유어와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단계라고 하였다.

이승명(1982)은 외래어란 일명 차용어라고도 했는데 해당 논의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와 국어와 함께 쓰이는 말을 가리켰다. 이때 공급원은 외국어라야 하고, 국어로의 수용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수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외국어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수용과정이란 고유어와 한자어와 동등하게 음운, 형태, 문법 등의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이희승(1941), 김민수(1973), 이승명(1982)의 논의를 정리하여 외래어의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ㄱ. 외국어 어휘는 국어화 과정에서 발음 변화의 양상을 거쳐야 외래어로서 적정하다.
- 나. 외국어 어휘는 국어화 과정에서 표기 형태 변화의 양상을 거쳐야 외래어로서 적정하다.
- 다. 외국어 어휘는 국어화 과정에서 의미 변화의 양상을 거쳐야 외래어로서 적정하다.
- 르. 외국어 어휘는 국어화 과정에서 그 절대적 사용 빈도의 우위와 산포도의 균형성이 확보되어야 외래어로서 적정하다.

위에 제시된 외래어의 조건을 크게 ‘쓰임의 조건(2ㄱ)’과 ‘동화조건(2ㄱ, 나, 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 중 ‘쓰임의 조건’을 ‘동화조건’보다 우선적으로 본 논의가 있다. 그것이 임홍빈(2009), 노명희(2009)의 견해이다. 임홍빈(2008)은 외래어는 전적으로 다른 언어에서 들어온 단어야 하며, 우리말 문맥에서 한글로 적히거나 한글 자모로 대표되는 우리말 음운으로 발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소리 차용’되는 것만으로도 외래어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소리 차용이 행해지면 그 이름이 고착될 가능성이 많아 이미 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명희(2009)도 외래어가 국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빈도로 출

현하여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외래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국어 어휘로 자리 잡을지 알 수 없으므로 국어 문장 속에 쓰인 모든 외국 기원의 어휘들을 잠재적인 외래어로 외래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노명희(2009: 9)의 ‘쓰임의 조건(2ㄷ)’이란 우리말 문맥 속에서 널리 사용됨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담화에 한두 번 사용되고 말거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외래어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는 시각에서는 ‘쓰임의 조건’과 ‘동화의 조건’을 모두 갖춘 부류만을 외래어로 인정하고 그 밖의 것들은 외국어로 분류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로 인식하는 어휘들은 국어로 굳어진 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부분 국어 속에 널리 쓰이기는 하나 동화의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한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논의는 그에 기댄다.

외래어는 오히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도 국어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순화 대상이 되는 어휘들에 초점이 놓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입장은 정희원(2000: 193)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깡, 와인, 리더, 보스’ 따위 말들은 흔히 사용되기는 하나 영어 단어의 뜻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미 분화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 국어 어휘로 보기는 어려운 말들이다. 이러한 낱말들은 종전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어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래어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홍빈(2008)과 노명희(2009) 논문에 의거하여 외래어의 조건 중 ‘쓰임의 조건(2ㄷ)’에 부합하면 외래어로 간주하고 조어법과 의미변이 현상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히 조어법을 논할 때는 외래어 어근에 한자어 접사가 결합한 경우도 외래어 파생 조어법의 일부분으로 보고 다루려고 한다.

2.1.2. 외래어의 범위

김민수(1973)는 외국어 단어가 외래어가 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외래어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첫째는 외국어라는 인식이 뚜렷한 단계, 둘째는 차차 익숙해지면서 두루 쓰이게 되고 생소한 의식이 없어지는 단계, 셋째는 나중에는 외국어라는 의식조차 없어지고 우리말로 여기게 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국어에 아주 융합되어서 우리말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 맞추어 외래어의 범위를 외국어, 차용어, 귀화어로 구분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광의의 외래어는 일차적으로 낱말의 기원이 외국어임을 지시하는 말로서 외국어, 차용어, 귀화어 모두를 포함하며, 외국어에서 들어왔지만 상당히 동화되어 국어의 일부가 된 차용어만을 협의의 외래어로 보았다. 이는 ‘외래어’라는 용어가 국어화한 말만을 지시하였던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외래어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실제로는 ‘외래어’라는 용어가 국어화한 말 뿐 아니라 외국어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김세중(1992)도 어떤 말이 국어 어휘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물음에 대해서는 학력 수준, 외국어 선호 경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구분은 무척 어려우므로,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 분명치 않은 것은 일단 ‘외래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송혜정(2007)도 외국어, 외래어, 차용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외래어’를 사용하였다.

통상적으로 제시되어 온 외래어 조건 중 ‘쓰임의 조건’을 외래어의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고 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쓰임의 조건’을 구체적인 실례에 적용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많이 쓰이는 ‘선글라스, 노트, 키, 테이블’이 동화 과정을 거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노명희(2009)에서도 어느 정도 쓰여야 쓰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동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외래어의 범위를 가장 폭넓게 볼 때 외래어와 외국어가 고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화자가 국어사용 맥락에서 외국 기원의 어휘를 쓴다면 이들은 잠재적인 외래어의 자격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의사소통 상황에서 외래어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외래어와 외국어, 차용어를 구분 짓지 않고 ‘광의의 외래어 개념’으로 외래어를 사용한다.

2.2.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과 의미 변이

2.2.1. 외래어의 조어법 현상

서구 외래어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국어 어휘는 양적으로 팽창을 더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구의 원어 요소가 국어 속에 유입되어 원어의 모습 그대로 쓰이기도 하고, 형태적으로 바뀌어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외래어 신조어에서 변화된 형태로 조어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어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 정리하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으며, 신조어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도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외래어가 늘어나면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외래어가 국어처럼 어형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줄어드는 형태가 접사처럼 쓰이면서 서구에서 볼 수 없는 신조어를 만드는데 하면, 일부는 합성어 어기처럼 쓰이면서 절단어나 약어 유형의 신조어를 만들기도 한다. 또는 문장 전체가 줄어서 합성어를 이루는가 하면 고유어에서 주로 일어났던 음운 축약 현상이 서구 외래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절단 현상은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언중들은 간결하게 말하면서도 언어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말을 줄여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생성된 절단어나 약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어법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래어를 차용할 때에 주로 명사로 차용하기 때문이다(서종학·김주필 1999: 38). 생산력이 높은 명사를 차용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단어와 결합하는 형태를 많이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외래어 합성어와 파생어가 만들어지고, 간편하고 짧게 하려는 경향으로 외래어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형식의 절단어, 약어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이 4가지 조어법으로 원어에서 볼 수 없는 어휘를 만들어 낸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조어법 유형이다.

첫째, 절단어는 ‘절단어’, ‘가위질말’, ‘단축어’, ‘자른말’, ‘잘린말’ 등으로 불리고 있다.³⁾ 김봉주(1984: 66)는 절단어를 ‘긴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 또는 끝 부분을 끊어 내어 만든 말’이라고 정의하였다. 노명희(2009: 12)에서는 절단을 ‘원 단어에서 앞이나 뒤의 형태를 잘라내고 사용하는 경우로 기존 단어의 부분을 잘라 새 단어를 만드는 일종의 형태론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단어 혹은 어간의 한쪽 끝을 제거하

3)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절단어’로 명칭을 통일하였다.

고 나머지 부분으로 단어를 짧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김봉주(1984), 노명희(2009)를 따라 절단어는 원 단어에서 일부분이 절단되어 새로 형성된 단어를 절단어로 보는데 이때 형성된 단어는 중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먼저 절단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합하여 형성된 혼성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절단 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절단어 원형 식은 단어이고, 혼성어는 별개의 두 단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 절단어의 예(노명희 2009: 13)

- ㄱ. 워드프로세서 →워드
- ㄴ. 코멘트→ 멘트
- ㄷ. 인플루엔자 → 플루

(3ㄱ)의 ‘워드’는 뒷부분을 절단한 뒷부분 절단어이고, (3ㄴ)의 ‘멘트’는 앞부분 절단한 앞부분 절단어이다. (3ㄷ)의 ‘플루’는 가운데 부분을 절단한 가운데 부분 절단어이다.

절단어는 그 성격이 생략어와 비슷하다. 이석주(1988)에서 생략이란 구성요소의 한 부분을 삭제하는 현상으로 단어 내에서는 음운이나 음절을 생략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⁴⁾ 그런데 절단은 원 단어의 앞이나 뒤의 형태를 잘라내는 형태론적 과정으로 형태만을 생략하는 것을 뜻하므로 앞서 말한 생략과는 구별된다. 그렇더라도 절단형과 생략형을 구별하여 다룰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절단과 생략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절단에 포함시켜 다루기로 한다.

대부분의 절단어의 의미와 품사는 절단되기 전과 같다. 형태소 경계에서 한 음절만을 떼어서 이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약어(셀프 카메라→셀카)와 달리 절단어는 단일어의 어떤 부분이든 관계없이 잘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약어는 머리글자말, 두문자어, 두음절어, 두자어(acronym) 등으로 불린다.⁵⁾

4) ①음운 생략 : 맞추다→마추다, 육월→유월

②음절 생략 : 섭섭하지→섭섭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이석주 1988: 136)

5)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소리 글자만을 취하거나, 첫소리 글자와 인접한 몇 글자를 함께 취하는 형태로 두자어화 되었다 보고 ‘약어’라고 부른다.

약어란 두 음절 이상으로 된 단어나 구문을 줄여 간략하게 만든 형태를 말한다(이석주 1988: 124).

이윤미(2005)는 두자어를 결합 관계에 따라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 ㄱ. 단어의 첫소리 글자만을 취하는 경우

스포츠투데이(sports today) → 스투(stoo)

ㄴ. 첫소리 글자와 인접한 몇 글자를 함께 취하는 경우

데이터 커뮤니케이션(Data Communication) → 데이콤(DACOM)

ㄷ. 한 단어 내 음절 단위(또는 형태소 단위)의 첫소리 글자를 취하는 경우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 오티(OT)

ㄹ. 첫소리 글자들과 함께 끝소리 글자를 취하는 경우

미군 해군 중령(Commander) → 시디아르(CDR)

이 중에서 (4ㄱ)의 경우처럼 각 어휘소의 앞 음절을 취하거나 (4ㄴ)처럼 뒤 음절을 취하는 경우가 가장 생산적으로 약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4ㄷ)와 (4ㄹ)처럼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는 약어는 그 수효가 극히 드물고, 생산성도 매우 떨어지는 변형적 약어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원단어와 약어가 모두 활발하게 쓰여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원단어과 약어 중 어느 한쪽만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국어의 범위에서 약어 현상은 단어나 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의 일부분이 음절 단위 이상으로 절단 생략된 것이다. 그 형태가 원단어보다 간략하면 서도 의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새로운 어형을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약어는 절단어와 비슷하다. 그러나 단일어의 어떤 부분이든 관계없이 잘라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는 절단어와 달리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어휘 경계부분에서 한 음절만을 떼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합성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새로 만든 단어를 만든다. 외래어의 합성어 형성은 외래어의 파생보다 더 생산적이다. 외래어는 (5)에서 보듯이 외래어 어근끼리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외래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이나 고유어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5) 외래어 합성어(변시내 2010: 35)

ㄱ.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골드/ 'gold' + /미스/ 'miss' → 골드미스

ㄴ.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기부/ '寄附' + /마라톤/ 'marathon' → 기부마라톤

ㄷ. 고유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고양이/ '고양이' + /렌즈 /'lens' → 고양이렌즈

ㄹ. 고유어 어근 +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꼭지/ '꼭지' + /점/ '點' + /댄스/ 'dance' → 꼭지점댄스

넷째, 파생어는 어근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결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다. 외래어 파생의 경우 외래어 접사가 원어 그대로 접사로 차용되는 경우가 있고 (-ist), 원어인 단일어가 국어 안에서 접사화 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full-), 원어에서 형태소를 오분석하여 접사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dol). 외래어 접두사는 자립적인 용법을 보이기도 하여 어휘적인 의미를 가져서 때로는 어근과의 구별이 모호하기도 하다. 외래어 접미사는 고유어 접미사와 같이 어기의 문법적 범주를 바꿀 수 없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6) 외래어 파생어(노명희 2009: 21)

ㄱ. 외래어 접두사 + 외래어 어근

/노/ 'NO' + /머니/ 'money' → /노머니/

/잇/ 'it' + /백/ 'bag' → /잇백/

ㄴ.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접미사

/운동/ '運動' + /돌/ 'dol' → /운동돌/

/아동/ '兒童' + /틱/ 'tic' → /아동틱/

본고에서는 위 외래어 조어 현상의 네 가지 유형을 최근 등장한 신조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2.2. 외래어의 의미 변이⁶⁾

여러 기원의 외래어가 국어의 어휘부 내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어휘와 동의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언중들이 어휘 선택과 구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미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여 전체 의미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차용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단어 중 한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두 단어가 동의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두 단어의 의미가 변이를 겪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세 한국어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동의어였던 ‘ㄱ롭 : 江’은 동의 충돌의 결과 고유어인 ‘ㄱ롭’이 소멸했고, ‘얼굴 : 形體(형체)’의 경우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모두 ‘形’의 의미를 갖고 있던 두 어휘가 각각 의미 영역이 달라져 현대 국어에서는 ‘얼굴’은 ‘面’만을 의미하고 ‘형체’는 그대로 ‘형상, 모습’을 뜻한다(마성식 1987: 804). 즉, 고유어와 한자어의 동의 충돌의 결과로 고유어가 소멸할 수도 있고, 고유어와 한자어가 각각 그 의미 영역을 달리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며, 한자어의 쓰임이 거의 없어진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Poplack, Sankoff and Miller(1988: 47)는 이중 언어 사용자나 다른 나라 언어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차용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용은 심리적인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언어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이주희 2004: 12).

Nyrop(1913), Ullmann(1962), 마성식(1987), 최명숙(1997), 윤평현(2008)은 의미 변이의 원인을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요인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언어 자체의 성질이나 결함 등에 의해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음운생략이나 음운변화를 통한 의미변화와 수용 경로가 달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환유에 의한 의미변화, 의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미변화, 유연성의 상실로 인한 의미변화, 외국어를 잘못 해석해서 오는 의미변화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바바리코트(Burberry coat)’는 ‘Burberry’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코트의 일종이다. 이는 언어적 원인 중 환유에 의한 의미 변이로 볼 수 있다(최명숙 1997: 24).

둘째, 역사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시간에 흐름에 따라 지시물이 변하지만 명칭은

6)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가 원어로부터 의미가 변하고 달라진 것에 초점을 둔다는 취지에 따라 ‘의미변이(變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교적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명칭은 단어 그대로일지라도 그것의 지시물이 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그 단어는 의미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기생’은 과거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인물로 미와 노래와 춤과 시를 겸비한 어느 정도의 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었으나, 근대 사회에는 술집 여인, 손님 접대부 정도의 의미로 전락했다(마성식 1987: 799).

셋째, 사회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언어와 사회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외래어가 원래 그 어원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 사용할 때와 다른 언어 체계에서 사용할 때는 의미의 차이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언어는 언중들의 정신적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누가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의미변화는 사회적 요인으로 말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은 사회계층에 의한 의미변화와 사회의 변천에 의한 의미변화로도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치(coach)’의 경우 원어에서는 ‘스포츠에서의 지도자’, ‘과외교사’라는 의미지만 대중에게 ‘코치’란 ‘스포츠 지도자’로 일반화되어 정착되고 있다. 사회계층에 의한 의미변화를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한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단어가 일반화되어 전체사회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심리적 원인을 들 수 있다 연상과 연합 작용에 의미해서 설명되거나 외래어와 고유어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전달 내용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연상과 연합 작용에 의한 의미변화는 Ullmann(1962)이 주장한 것과 같이 의미가 유사한 것이나 의미의 영역이 근접해 있을 때 의미 연상이 쉽게 일어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다. 그 예로 ‘브로커(broker)’가 있다. 원래의 ‘브로커’의 의미는 ‘중개인, 알선자’ 등을 의미하지만 대체로 ‘종지 않은 일을 알선하는 사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외국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어떤 단어가 그때까지 없던 의미를 같은 계열의 외국어 단어에서 차용할 때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국어의 ‘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star’는 ‘별’ 이외에 ‘장군’, ‘인기 연예인’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국어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이나 ‘장군’을 ‘별’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

여섯째,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에 기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물이나 사고, 또는 행위가 나타나면 그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새말의 창조, 외국어의 차용, 기존 단어의 의미 확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존의 단어에 의미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전화기’를 의미하는 ‘폰’은 ‘휴대전화기’가 생긴 후부터 ‘전화기’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지만 ‘휴대전화기’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즉, ‘휴대전화기’가 생기면서 ‘폰’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어의 영향으로 의미변이가 일어난 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변이란 본래의 의미의 의미 영역이 좁아져 한 낱말의 외면적 의미가 좁아짐으로써 기존의 의미를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의미의 축소, 외래어로서 사용하게 될 때 외국어로서 가지고 있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의미가 굴절되는 의미의 이동⁷⁾ 등이 있다.

7) 다른 의미로 바뀐 것을 ‘의미의 전이, 의미의 이동,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동’을 사용하기로 한다.

3. 외래어 조어법 현상

본고에서는 줄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단어화, 약어화와 조어법의 기본이 되는 합성과 파생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절단어화

절단어화란 단어의 일부분을 잘라 남은 부분만으로 원래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성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결과 형성된 단어를 절단어라 한다. 절단어는 절단 부위에 따라서 첫 부분 절단어, 첫 부분·끝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첫 부분·끝부분 절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첫 부분 절단의 경우를 살펴보자.

3.1.1. 첫 부분 절단어⁸⁾

첫 부분 절단어란 구성 어휘의 앞 부분이 잘려나가는 단어를 말한다. 다음은 국어에 차용된 외래어의 첫 부분 절단어의 예이다.

7) ㄱ. 넥타이 (necktie) → ‘타이’

셔츠나 타이만큼은 ‘과감한’ 컬러에 도전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월간중앙 5월호』, 중앙일보 2000-말뭉치)

ㄴ. 콘트라베이스(contrabass) → ‘베이스’

한 사람은 기타를, 한 사람은 베이스를 연주하며 저 미주리 하늘 너머엔 무

8)이윤미(2005)에서 절단어의 유형을 절단 부위에 따라서 첫 부분 절단어, 첫 부분과 끝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로 분류하고 있다.

엇이 있을까, 내 음악이 저 지평선을 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김영하, 『아란은 왜』, 중앙일보 2000-말뭉치)

ㄷ.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 ‘마이신’

마이신을 주사하거나, 항생제를 복용시키고, 연고나 소독 정도로 얼마든지 가능한 치료였다.

(채희윤, 『한평 구휼의 안식』, 민음사, 1993-말뭉치)

ㄹ. 셔틀콕(shuttlecock) → ‘콕’

배드민턴 라켓- 콕 기증

(동아일보, 1995. 01. 26)

(7)은 전형적인 절단어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단일어로 등재되어 형태소의 경계와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뒷부분을 절단한 형태의 예이다.

(7ㄱ)의 절단어 ‘타이’는 ‘뒹다’의 의미보다 ‘넥타이(necktie)’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접미사 ‘-족’이나 ‘-맨’과 결합하여 ‘타이족’, ‘타이맨’이라는 단어를 파생하기도 한다. (7ㄴ)의 ‘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contrabass)’의 ‘콘트라’를 절단한 형태로 바이올린 부류의 현악기 가운데 가장 크면서, 가장 낮은 음역의 악기를 말한다.

(7ㄷ)의 ‘마이신’은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의 ‘스트렙토’를 절단한 형태로 항생제를 말한다. (7ㄹ)의 ‘콕’은 ‘셔틀콕(shuttlecock)’의 ‘셔틀’을 절단한 형태로 배드민턴 경기에 사용하는 깃털이 돌려 붙여진 공을 말한다. ‘타이, 베이스, 마이신’은 사전에 ‘넥타이, 콘트라베이스, 스트렙토마이신’의 절단된 동의어⁹⁾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콕’은 일상생활에서는 절단하여 ‘콕’으로 사용되며 절단되기 이전에 형태인 ‘셔틀콕’은 단일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콕’은 아직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

9)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본고에서의 의미하는 절단어·약어의 개념을 통합하여 약어라 표기하고 있다.

다음은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7)의 용례와 다를 바 없이 단일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절단된 형태 또한 동의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합어로 등재되어 있는 예이다. 이는 사전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절단어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예이다.

(8) ㄱ. 골키퍼(goalkeeper) → ‘키퍼’

골 포스트는 없고 그저 키퍼의 키만 넘기면 득점으로 쳤으며, 일정한 경기 시간이 없이 어느 한편이 지쳐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고 손을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규태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미디어-말뭉치)

ㄴ. 하이힐(highhill) → ‘힐’

김효진, ‘높아도 너무 높은 힐에 걷기 힘들어 보여’

(OSEN, 정송이 기자, 2013. 04. 24)

ㄷ. 핸드폰(handphon) → ‘폰’

폴 케이스를 폰에 저장하고 싶어요.

(마니아리포트, 박태성, 2013. 04. 26)

(8ㄱ)의 ‘키퍼’는 축구나 하키 따위에서 골을 지키는 선수를 의미하는 ‘골키퍼(goalkeeper)’의 첫 글자 ‘골’을 절단한 형태이며 건강을 뜻하는 ‘헬스(health)’와 결합하여 건강지킴이라는 뜻의 ‘헬스키퍼’라는 어휘로 조어되기도 한다. 즉, ‘키퍼’는 골을 지키는 선수 외에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문맥에서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골을 지키는 선수라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8ㄴ)의 ‘힐’은 많은 사람들이 여성 높은 굽의 구두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본래 뜻은 구두가 아닌 구두의 굽을 지칭하는 말이다. 구두의 앞쪽에 굽이 들어간 구두를 ‘가보시힐’이라고 부르고 10cm가 넘는 구두를 ‘킬힐’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국어 안에서는 굽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휘를 절단하여 높은 굽의 구두를 1음절 ‘힐’로 사용하고 있다. (8ㄷ)의 ‘폰’은 ‘핸드’를 절단한 형태로 ‘핸드폰(handphon)’을 의미한다. ‘폰’은 국어로 번역하면 ‘전화기’인데 대부분 ‘핸드폰’의 의미로 사용된다.

3.1.2. 끝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란 구성 어휘의 뒷부분이 잘려나간 단어를 말한다. 다음은 국어에 차용된 외래어 끝 부분 절단어의 예이다. 주로 절단된 뒤에 2,3음절의 단어를 형성하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절단된 후에도 의미와 품사에는 변화가 없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9) ㄱ. 아마추어(amateur) → ‘아마’

올림픽 출전을 위한 훈련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을 보상받으면 프로인가
아마인가

(이규태,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솔빛 미디어-말뭉치)

ㄴ. 다운로드(download) → ‘다운’

아직도 컴퓨터 화면 위에는 ‘매직 폴더’ 파일과 해커들에게서 다운받은 파일이 떠 있었다.

(최인석, 『구렁이들의 집』, 문학과지성사, 2001-말뭉치)

ㄷ. 프로그램(program) → ‘프로’

TV 코미디 프로에도 나와 춤도 추고했는데.

(『레이디경향(1994/05 - 1994/08)』, 서울: 경향신문사, 1994-말뭉치)

ㄹ. 아나운서(announcer) → ‘아나’

김주희 아나 ‘우아한 스타일’

(매일경제, 2013. 05. 30)

(9ㄱ)의 ‘아마’는 ‘아마추어(amateur)’의 뒷부분 ‘추어’를 절단하여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기는 사람’을 의미로 사용되고 (9ㄴ)의 ‘다운’은 ‘다운로드(download)’의 뒷부분 ‘로드’를 절단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파일이나 자료를 받아 오는 행동을 의미’로 사용된다. (9ㄷ)의 ‘프로’는 ‘프로그램(program)’의

뒷부분 ‘그램’을 절단하여 ‘계획표, 차례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9ㄷ)의 ‘아나’는 ‘아나운서(announcer)’의 뒷부분 ‘운서’를 절단하여 ‘뉴스 보도, 사회, 실황 중계의 방송을 맡아 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9)는 모두 후부의 ‘-추어, -로드, -그램, -운서’를 절단한 끝 부분 절단어이다.

다음은 (10ㄱ) - (10ㄴ)은 5음절에서 2음절로 절단된 예이고, (10ㄷ)은 5음절에서 3음절로 절단된 예이다.

(10) ㄱ. 다큐멘터리(documentary) → ‘다큐’

워터게이트 사건 소재 / 5부작 다큐로 제작중
(『조선일보 문화(93)』, 조선일보사, 1993 - 말뭉치)

ㄴ. 내비게이션(navigation) → ‘내비’

스마트폰 만난 내비 “더 똑똑해졌네”
(파이낸셜뉴스, 2013. 04. 12)

ㄷ. 프로페셔널(professional) → ‘프로’

정치까지도 누가 하라면 아마추어들이 곧장 뛰어난 프로 흉내를 웃지도
않고 곧잘 내는 판인데…
(김원우, 짐승의 시간-말뭉치)

ㄹ. 업그레이드(upgrade) → ‘업글’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영어 선생님이로 나온 최민식이 빨테 안경을
끼고 나오더니, 패션 리더들은 사각 빨테로 분위기를 업글한다.
(조선일보, 2005. 10. 27)

ㄱ. 데코레이션(decoration) → ‘데코’

침대 받치 활용 & 데코 아이디어 4가지
(『라벨르 9월호, (98)』, 중앙일보사, 1998 - 말뭉치)

ㄴ. 다이아몬드(diamond) → ‘다이아’

1캐럿 다이아 380만원 /삼신 “원석 수입 가공”

(10ㄱ)의 ‘다큐’는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멘터리’를 절단한 형태로 대부분의 경우 ‘다큐멘터리’의 의미로 쓰이나 때로는 ‘심각하고 심오하다’는 의미로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 ‘다큐로 받아들이다’와 같은 의미로 문맥에서 쓰이기도 한다. (10ㄴ)의 ‘내비’는 길을 안내해주는 장치를 뜻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의 끝소리가 절단된 형태로 조어되는 예이다. (10ㄷ)에서 ‘프로’는 (9ㄷ)에서 ‘프로’와 동음이의어이지만 이때의 ‘프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의 ‘-페셔널’을 절단한 어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예들과 달리 (10ㄹ)의 ‘업글’은 앞서본 형태와 달리 ‘업그레이드’를 줄여 쓴 것으로 절단과 축약 현상이 같이 일어난 예로 볼 수 있다. (10ㅁ) ‘데코’ 또한 특이한 경우인데 외래어 표기에 따르면 ‘데커레이션(decoration)’이 바른 표기인데 절단한 단어를 ‘데커’가 아닌 ‘데코’로 조어된다. 이는 원어 철자 ‘decoration’에서 ‘ration’을 절단한 ‘deco’의 ‘o’에 대응하는 국어 모음으로 ‘ㅏ’를 선택하여 ‘데커’가 아닌 ‘데코’의 형태로 조어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절단어는 2음절로 절단되지만 드물게 3음절로 절단된 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10ㄴ)의 ‘다이아’는 ‘다이아몬드(diamond)’의 후부 절단어이고, 그 외 텔레비/텔레비(텔레비전), 에어컨(에어컨디셔너) 등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절단어가 4, 5음절에서 2, 3음절로 절단되는 이유로 노명희(2011: 46)는 한자어의 경우 2음절어가 많은 어휘를 차지하므로 2음절이 되면 어휘적 안정성을 얻어 단어의 자격을 갖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2음절로 절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고, 최영(2010: 21)은 우리말의 명사가 대부분 2음절이므로 절단어는 2음절 단어가 많다고 보았다.

외래어가 차용되어 절단어화를 겪는 이유로 이윤미(2005: 87)는 적은 양의 노력으로 많은 양의 의미를 담아 의사를 전달하려는 경제성을 때문에 절단어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화의 발달과 정보량의 증가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은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의 전달 효과를 얻기 위해 어형을 절단시킨 것이다.

외래어 절단어 중에는 차용되어 절단된 형태도 있지만 일본어로 차용되어 절단되어 사용된 것이 국어로 재 차용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프로’, ‘데모’, ‘인플레’

등이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어의 외래어 문자표기의 대표적 특징인 절단법이 그대로 적용된 것들이다(원홍연 2009: 30). 음절 구조상 일본어는 음절말에 단자음을 허용하지 않아 외국어 음절말의 자음을 차용하면 음절 초의 자음으로 음절화하여 음절수가 지나치게 길어져서 이를 축약해서 표기하고 사용한다. ‘McDonald’를 マクドナルド(마꾸도나루도)로 하고 줄여서 ‘마끄’라고 한다. 이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외래어에 대한 절단어 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그중 일부가 우리 외래어에도 재차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3.2. 약어화

약어화란 어떤 말에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한 음절씩만을 따서 결합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결과 형성된 단어를 ‘약어’라 한다. 절단어와 같이 최소의 노력으로 의미를 최대한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어 방식으로 영어에서 두자어(acronym)로 분류되는 예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M.T.(membership training), U.S.A.(united states of america)는 약어화된 단어가 차용된 예이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서울대(S), 고려대(K), 연세대(Y)를 SKY로 약어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들어와 M.T.(엠티)처럼 자모대로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만 SKY의 경우는 음절화하여 스카이로 읽기로 한다. 사용되는 속도를 중시하는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약어와 같은 언어현상이 현대 언어생활의 중요한 한 특징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영향으로 오늘날은 신조어의 르네상스라 할 정도로 많은 신조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약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다음에서 보듯이 국어에 생성된 외래어 약어는 대부분 2음절로 형성되고 본말이 두 단어로 구를 이룬 경우가 가장 많다.

(11) ㄱ. 셀프 카메라(self camera) → ‘셀카’

셀카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잘 찍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엿 볼 수 있는 사례다.

(동아일보, 2004. 06. 18)

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Manchester United FC) → ‘맨유’

맨유, 파브레가스 영입 나서

(일간스포츠, 2013. 05. 29)

(12)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 → ‘베프, 뽀’

뽀은 베스트프렌드의 준말 베프의 준말 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 베프

→ 뽀 최고의 친구란 뜻이죠.

(네이버 지식인 오픈국어)

(13) ㄱ. 카카오 톡(kakao talk) → ‘카톡’

수사기관에 넘겨준 카톡 개인정보, 30일내 통보해줘야

(뉴스1, 2013. 05. 14)

ㄴ. 페이스 북(face book) → ‘페북’

‘SNL’ 이준석 공개 구혼 “관심 있으면 페북으로 연락”

(스포츠월드, 2013. 05. 26)

(14) ㄱ. 개그 콘서트(gag concert) → ‘개콘’

김영희 “개콘동기 짝사랑 중” 고백.. 박미선 “누군지 알아”

(동아일보, 2012. 05. 26)

ㄴ. 뮤직 비디오(music video) → ‘뮤비’

조용필, 19집 발매 20만장 돌파...‘건고 싶다’ 뮤비 티저 공개

(스포츠월드, 2013. 05. 29)

(11)~(14)는 각 형태소의 첫 음절을 결합한 결과 2음절약어가 만들어진 경우다.

(11ㄱ)의 ‘셀카’는 ‘셀프카메라(self camera)’의 약어로 셀프서비스(self-service)에서 유추되어 생성된 약어로 국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어휘라 할 수 있다. (11ㄴ)의 ‘맨유’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프로축구팀 이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Manchester United FC)’의 약어로 사용하고 있다.

(12)의 ‘베프’는 ‘베스트 프렌드(best friend)’는 약어로 앞서 본 전형적인 약어형과 달리 ‘베프’와 베프의 축약형 ‘뽀’ 두 가지로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쓰이고 있다. ‘베스트 프렌드’에서 각 단어의 첫 음절로 2음절 약어 ‘베프’를 만든 후, ‘베프’의 두 번째 음절 ‘프’의 자음 ‘ㅇ’를 ‘베’의 음절말에 위치하여 1음절 ‘뽀’을 만들었다.

(13ㄱ)의 ‘카톡’과 ‘페북’은 앞 단어의 첫 음절과 뒤에 단어의 결합으로 약어화된 형태가 비슷하다. ‘카톡’은 ‘카카오톡(kakao talk)’의 약어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 메신저이다. 현재 4000만 명이 넘게 사용하는 앱으로 이와 연계된 ‘카카오토리’ 또한 ‘카스’라 불리며 약어화되어 쓰이고 있다. (13ㄴ)‘페북’은 ‘페이스북(face book)’이라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맨유’처럼 한국에서만 약어화되어 쓰이고 있다.

(14ㄱ)는 방송관련 용어로 ‘개콘’은 ‘개그 콘서트(gag concert)’라는 개그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약어화 되어서 신문, 방송, 실생활에서 주로 쓰이고 있다. (14ㄴ)‘뮤비’는 노래나 연주 등 그 음악에 맞는 영상물로 ‘뮤직 비디오(music video)’의 약어형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외래어의 약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2음절화 된 형식이 대부분이다. 외래어는 3음절 약어가 드물지만 순우리말 약어는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진다)처럼 3음절 약어가 많다. 이처럼 외래어에서 약어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외래어가 순우리말이나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국어 어휘 부류의 하위부류에 속하기 때문이다.

3.3. 합성

외래어로 이루어진 단어의 형성방식으로는 파생보다 합성이 더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성이 단어를 형성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합성어란 둘 이상의 어기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합성 방식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 방식과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최재희 2004). ‘통사적 합성’¹⁰⁾은 두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구나 어절의 구성 방

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한다.

외래어가 합성에 참여할 때에는 ‘통사적 합성’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사적 합성어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통사 구성인 구와도 구별되어야 한다. 합성어와 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흔히 드는 것이 ‘분리 가능성’과 ‘실제 동작과 구성 요소의 배열 순서가 일치하는가의 여부’ 그리고 ‘의미적 기준’¹¹⁾이다(최재희 2008: 229). 본고에서도 이에 입각하여 외래어 합성어를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구조,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구조, ‘고유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구조와 같이 유형별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3.1. 합성어 유형 I [외래어 어근+외래어 어근]

원어에서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나 동사일지라도 국어로 차용된 후 외래어는 어휘 범주가 대부분 명사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어근’ 합성어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된 합성어로 분석된다. 이러한 외래어 합성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15) 가. ‘카페(cafe)’ - 헤어카페, 셀프카페

시장 내에 커피숍·헤어카페를 만들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도입해
(서울경제, 2013. 05. 25)

나. ‘골드(gold)’ - 골드미스, 골드카드, 골트라벨

회원가족 5명에게는 골드카드가 발급되며 예약 보장은 물론 평생 연회비 면제와 1년간 관리비, 수영장·해수사우나 무료 및 관계 골프장 3곳에서 부부회원이 주중 정회원으로 라운딩 할 수 있다.

(『월간중앙 8월호』, 중앙일보 J&P, 2000-말뭉치)

다. ‘힐링(healing)’ - 힐링캠프, 힐링푸드, 힐링메세지

11) 의미적 기준이란 구성 요소의 의미를 단순하게 합한 의미와는 다소간 다른 의미로 파악되는 것으로 즉, 구성 성분의 의미를 합친 것과는 다른 의미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 a. 화순 힐링푸드축제 성황리에 폐막
(아시아경제, 2013. 05. 20)
- b. 장항준 감독 독서캠페인 통해 힐링메세지 전달
(스포즈월드, 2013. 02. 25)

ㄹ. ‘셔틀(settle)’ - 가방셔틀, 담배셔틀
 “신종 학교폭력 ‘가방셔틀’ ‘담배셔틀’ 등장에 우려”,
 (매일신문, 2010. 01. 18) 셔틀 중간 줄 지우기

- ㄱ. ‘홀릭(holic)’ - 가방홀릭, 휴대폰홀릭
 - a. 안선영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 어디에 쓰겠나. 나를 위해 쓴다. 외국을 오가며 하나씩 모은 가방들로, 올해도 열심히 벌어서 가방으로 가득 채워 졌으면 좋겠다”라면서 ‘가방홀릭’의 면모를 드러냈다.
(엑스스포츠, 2012. 10. 12)
 - b. 올 여름 블랙 앤 화이트에 홀릭되다.
(OSEN, 2013. 05. 26)

(15ㄱ)에서는 ‘커피 전문점을 나타내는 단어로 차용되어 자주 쓰이고 있는 ‘카페(cafe)’가 활발하게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머리 손질하는 곳이지만 머리를 하지 않아도 차를 마실 수 있는 ‘헤어카페’, 직접 차도 만들고 간식도 가져가는 ‘셀프카페’ 등 카페의 개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신조어로서 조어되고 있다.

(15ㄴ)에서는 ‘골드(gold)’가 ‘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고급, 능력, 특별’의 의미로 ‘미스’와 결합하여 ‘능력 있는 미혼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골드’가 결합됨으로써 그 동안 ‘미혼여성’을 ‘노처녀’로 치부했던 ‘올드미스’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다. 이 외에도 ‘골드’는 ‘카드, 라벨’ 등과 결합하여 결합하여 ‘고급의’라는 의미를 추가한 새로운 신조어를 형성하고 있다.

(15ㄷ)의 ‘힐링(healing)’은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외래어 어근 중 하나이다. ‘치유’의 의미로 ‘힐링캠프, 힐링푸드, 힐링메세지’ 등 외래어 뿐 아니라 국어 어근과도

결합양상을 보인다. ‘힐링’이라는 외래어 어근이 활발하게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재 사회적으로 자살률도 높고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불안정 등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현상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15ㄷ)의 ‘셔틀(shuttle)’은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강제로 부리는 형태’라는 의미로, 외래어 어근 ‘빵’과 결합하여 ‘빵을 강제로 사오게 만드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외래어 어근 ‘가방’과 결합하면 ‘가방을 강제로 들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셔틀’은 외래어 어근 ‘빵’이나 ‘가방’등과 결합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어를 생성한다.

(15ㄹ)의 ‘홀릭(holic)’은 영어 ‘alcoholic’의 홀릭을 차용한 어근으로 ‘중독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홀릭’은 ‘러브’, ‘쇼핑’ 등과 결합하여 ‘사랑중독자’, ‘쇼핑중독자’로 사용되는 등 왕성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홀릭’은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공부홀릭, 가방홀릭, 차홀릭’ 등과 같은 신조어를 생산하고 있다.

3.3.2. 합성어 유형 II [한자어 어근+외래어 어근]

한자어 어근에 외래어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된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그 이유로 박정순(2003)에서는 고유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외래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차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어보다는 개념어나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한자어가 외래어와 잘 결합한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성어 유형은 구 구성과 잘 구별해야 한다. 구 구성의 경우 띄어쓰기가 적용된다. 그 예로 수중 카메라(水中camera)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중’과 ‘카메라’ 사이에 ‘자동’ 등이 들어가 ‘수중 자동 카메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구성과 구별되는 합성어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16) ㄱ. ‘모드(mode)’ - 공부모드, 연애모드

a. 강지영 학교 첫 등교 빨데 안경 쓰고, ‘공부모드’

(스포츠서울, 2012. 03. 24)

b. MBC 수목극 ‘남자가 사랑할 때’의 남녀 주인공 송승헌과 신세경이 최근 달달한 연애모드에 돌입
(스포츠서울, 2013. 04. 24)

ㄴ. ‘댄스(dance)’ - 복고댄스, 방송댄스, 최신댄스
티아라엔포, 복고댄스 무대
(매일경제, 2013. 05. 09)

ㄷ. ‘다이어트(diet)’ - 황제다이어트, 효소다이어트, 한방다이어트
삼성그룹 이 회장이 황제다이어트로 2주 만에 4.5kg을 감량
(매일신문, 2013. 04. 17)

ㄹ. ‘주스(juice)’ - 해독주스
해독주스 마법주스...연이은 다이어트주스 눈길
(노컷뉴스, 2013. 05. 28)
영어를 넣으려면 예문 전체에 다 넣도록

ㅁ. ‘퓨전(fusion)’ - 퓨전음식, 퓨전음악, 퓨전국악
퓨전음악과 마임의 만남 ‘마임과 아트키키’가 17일...
(매일신문, 2013. 05. 08)

(16ㄱ)의 ‘모드(mode)’는 원래는 ‘방법, 방식, 유행의 스타일’이라는 뜻이었는데 ‘상황, 상태, 분위기’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특정한 상태나 행위를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하여 공부모드, 연애모드와 같은 합성어를 형성하고 있다.

(16ㄴ)의 ‘댄스(dance)’는 ‘서양식의 사교 춤’이라는 뜻으로 한자어 어근 ‘복고(復古)’와 결합하여 ‘옛날 느낌의 춤’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또 한자어 어근 ‘방송(放送)’과 결합하여 ‘대중가요의 가수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추는 춤’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용댄스’, ‘최신댄스’ 등이 있다.

(16ㄷ)의 ‘다이어트(diet)’는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이어트의 방식에 따라 결합하는 한자어 어근이 달라진다. 고기로 다이어트를 하는 ‘황제다이어트’, 한의의 처방으로 하는 ‘한방다이

어트’ 등이 있다.

(16ㄹ)의 ‘주스(juice)’는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재료가 무엇이나에 따라 결합하는 어근이 달라진다. 그중 ‘해독주스’는 여러 야채들을 종합하여 짜낸 즙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유명해진 단어이다.

(16ㄱ)의 ‘퓨전(fusion)’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것을 섞어 새롭게 만든 것’이라는 뜻으로 ‘김치피자’, ‘치즈돌솥비빔밥’의 경우 한국 음식과 서양음식이 섞였으므로 ‘퓨전음식’이라고 부른다. 특히 이와 같이 국적이 다른 두 종류가 섞일 때 외래어 어근 ‘퓨전’을 많이 사용한다.

이광호(1998: 528)는 한자어는 오랜 기간 동안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존속해 왔지만 자신의 외래적 속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기 때문에 고유어 어기는 피하면서 출신 성분은 다르지만 그 속성 면에서 동일한 외래어 요소 어기와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3.3. 합성어 유형Ⅲ [고유어 어근+외래어 어근]

외래어 어근에 고유어 어근이 결합되어 합성어가 만들어진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7) ㄱ. ‘케이크(cake)’ - 떡케이크, 밥케이크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전할 떡케이크를 만드는 행사가 13일 한국 피앤드지 주최로 서울 문래동 홈플러스 앞에서 열려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2003. 04. 14)

ㄴ. ‘보일러(bolier)’ - 기름보일러, 나무보일러

고유가에 나무보일러 인기

(뉴스Y, 2012. 12. 03)

ㄷ. ‘버거(bugger)’ - 밥버거, 떡버거

간편, 영양까지 밥버거 전문점 상한가 이어간다

(폴리뉴스, 2013. 05. 22)

ㄹ. ‘백팩(backpack)’ - 등골백팩

‘등골백팩’이라는 말이 있다.

(시사저널, 2013. 03. 28)

ㄱ. ‘브레이커(breaker)’ - 등골브레이커

원더풀 마마 정유미 등골브레이커 등극

(강원일보, 2013. 04. 15)

ㄴ. ‘티슈(tissue)’ - 물티슈

위생 물티슈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2002년 기사: 생활』, 중앙일보사, 2002.-말뭉치)

ㄷ. ‘빅(big)’ - 빅감동

3주연속 1위 김경호 ‘헤이헤이헤이’ 나가수의 빅감동

(데일리안, 2011. 11. 21)

(17ㄱ)의 ‘케이크(cake)’는 밀가루를 주 원료로 만든 빵이다. 고유어 어근 ‘떡’과 ‘밥’이 결합하여 떡이나 밥으로 만든 케이크 모양의 음식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떡 케이크’와 ‘밥케이크’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 만든 퓨전음식인 것이다.

(17ㄴ)의 ‘보일러(boiler)’는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난방 시설로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면 ‘기름보일러’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면 ‘나무보일러’라 부른다. 특히 ‘나무보일러’는 나무를 때는 형식의 난방 시설로 1998년도에 농촌형 보일러로 개발한 것이다.

(17ㄷ)의 ‘버거(burger)’는 절단어와 단일어로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햄버거’의 ‘햄’을 절단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햄버거의 동의어 ‘버거’로 본 경우이다.¹²⁾ 국어사전에는 ‘버거’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햄버거’의 동의어는 ‘햄버그스테이크’로 등재되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유어 어근과 결합하는 ‘버거’는 ‘햄버거’의 ‘햄’

12)영어 사전에는 bugger의 동의어로 hamburger가 등재되어 있다.

을 절단한 절단어로 보았다. ‘햄버거’란 야채 따위를 둥근 빵에 끼운 음식으로 고유어 어근 ‘밥’과 결합한 ‘밥버거’는 빵 대신에 야채 따위를 밥에 끼운 음식을 말한다. 이외에도 빵 대신에 떡으로 만들면 ‘떡버거’라 하고 또는 빵 사이에 불고기를 넣으면 ‘불고기버거’로 새우를 넣으면 ‘새우버거’로 고유어 어근과 결합양상이 많다.

(17ㄷ)의 ‘백팩(backpack)’은 등에 매는 가방을 말하는데 고유어 어근 ‘등골’이 결합하여 부모님의 등골이 훔 만큼 비싼 책가방을 의미하는 ‘등골백팩’으로 조어되고 있다. 고유어 어근 ‘등골’은 (17ㄱ)의 외래어 어근 ‘브레이커(breaker)’와 결합하여 ‘등골브레이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브레이커’는 파괴자라는 뜻으로 ‘등골’과 결합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부모님의 등골이 훔 정도로 용돈을 요구하는 철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등골백팩’과 ‘등골브레이커’의 고유어 어근 ‘등골’은 ‘척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말로 현 시대상황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17ㄴ)의 ‘티슈(tissue)’는 화장용의 얇고 부드러운 질 좋은 화장지를 말한다. 고유어 ‘물’이 결합하여 물이 적혀진 화장지를 의미하여 국어사전에 ‘물티슈’의 동의어로 ‘물휴지’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말뭉치 예문을 찾아 본 결과 ‘물휴지’는 검색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물휴지’보다는 ‘물티슈’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ㄸ)의 ‘빅(big)’은 ‘크다’의 의미로 ‘빅웃음’, ‘빅재미’는 큰 웃음, 큰 재미를 받았을 때 사용한다. 이는 방송 용어로 재미를 위해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합성하여 사용한다.

3.4. 파생

파생이란 외래어가 접사로서 다른 어휘들과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영근(1989)은 파생어를 그 구조적 자율성을 기준으로 하여 제1차적 파생어와 제2차적 파생어로 나누어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파생어의 어기와 접사의 경계를 규명하고 이를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여기에 결합되어 성분의 규칙성과 분리성을 기준으로 접사로 규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석법을 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주연(1991)은 파생과 굴절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접사를 설정

하여 파생어에 사용되는 형태소의 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파생어를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세분하여 논하였으며, 그 특질과 성격에 대해서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이를 사용한 파생어들을 그 품사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석주연(1995: 11)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파생어의 단일어적 성격의 위계성에 대해 논하며, 어기와 접사의 존재 양상에 따라 파생어의 단일어적 성격의 정도상 차이를 보여주었다.

(18) 파생어의 단일어적 성격(석주연 1995: 11)

- ㄱ. 어기가 존재, 접사는 생산적.
- ㄴ. 어기가 존재, 접사는 비생산적.
- ㄷ. 어기 소멸, 혹은 변화 있음. 접사는 생산적.
- ㄹ. 어기 소멸, 혹은 변화 있음. 접사는 비생산적.

(18ㄱ)에서 (18ㄹ) 방향으로 갈수록 파생어의 단일어적 성격이 진전되며, 어기가 접사에 비해 일반적으로 훨씬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기와 접사의 존재 양상이 단일어화의 정도를 논하는 데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접사에는 접두사, 접미사, 접요사가 있을 수 있는데, 국어에서는 접요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어의 접사에 의한 파생어는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와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양분할 수 있다. 파생 접사를 분류하자면, 그 기능을 살펴봄에 따라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는 데 관여하지 않은 한정적 접사이고, 접미사는 품사의 종류를 바꾸는 데 관여하는 것이 지배적 접사이다. 이것으로 보아 접미사는 접두사에 비해 그 기능이 훨씬 생산적이다.

외래어 파생을 공식적인 입장에서 외래어 접사에 어떠한 어기가 통합되어 새로운 외래어 파생어를 생성하는지 살펴보겠다. 원어에서는 자립적인 낱말이지만 국어에서는 그 자립적 단어로 쓰이지 않고 거의 접사화하여 쓰이는 경우도 파생어로 보고 이곳에서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이미 과거의 규칙으로 과거에 만들어져서 현대에 그대로 넘어온 단어들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조어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래어는 원어에서 형태소 경계가 없었는데 외래어에서는 형태소 경계가 생겨

단어 형성에 기여한 예도 있다. 예를 들면 ‘아이돌(idol)’의 ‘-돌’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돌’이 ‘성인돌’, ‘짐승돌’ 등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게 되면서 ‘-돌’이 형태소의 자격을 얻게 된다. 영어에서는 ‘idol’의 이음절 ‘dol’이 형태소의 일부로 독립적인 형태소 자격을 갖지 못하였으나 국어에서 /-돌/은 형태소의 자격을 얻은 셈이다. 또한 ‘다운로드(download)’는 영어에서 ‘down’과 ‘load’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되지만 국어의 어휘부에 편입되어 사전에 등재될 때는 하나의 형태소 ‘다운로드’로 등재된다.

이와 같이 외래어의 형태소 분석은 원어의 형태소 분석과 다를 수 있다. 본 절은 외래어 파생어를 접미 파생어와 접두 파생어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한자어가 외래어 어기나 접사와 결합하는 그러한 조어 현상도 논의하고자 한다.

3.4.1. 접미 파생어

접미사란 단어형성을 할 때 어근 뒤에 붙는 접사를 말한다. 접미사는 접두사와는 달리 어근에 대한 한정적 기능 외에도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강나탈리아(2008)에 노명희(2004)에서 제시한 한자어 접미사 판별 기준을 바탕으로 외래어 요소에 있어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외래어 접미사 선별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에서의 형태소 분석과 무관하게 절단되어 여기에 결합하면서 어떠한 뜻을 더하는 외래어 요소를 접미사로 간주한다. 둘째, 외래어 접미사는 어기의 통사범주를 바꿀 수 있다. 셋째, 외래어 접미사는 어휘적인 의미가 문법적인 의미에 비해서 약화된 것이나 의미 변화를 겪는 요소는 접미사로 간주한다. 넷째, 외래어 접미사는 동일한 의미로 단어의 첫 음절에 쓰일 수 없다. 다섯째, 외래어 접미사는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에 제시한 외래어 접미사 설정 기준을 바탕으로 원어에서 접미사였던 품사 그대로 차용된 ‘-어, -이즘, -리스트, -모드’와 원어에서 명사이거나 형태소의 자격이 없는데 형태소의 자격을 갖게 되어 접미사화 된 ‘-돌, -룩, -테크’를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외래어 어근과 결합하여 생산성이 높은 한자어 접사 ‘-력, -족, -생’을 알아보자.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9) ㄱ. ‘-돌(dol)’ - 운동돌,모델돌,성인돌,짐승돌,사투리돌

a. 짐승돌 비스트, 교복하나 입었을 뿐인데…

(아시아뉴스통신,김수정기자,2013-04-12)

b.정은지 “성시원 나였기에 가능” vs 리지 “원조는 나” 사투리돌 신경전

(뉴스엔, 2012. 10. 01)

ㄴ. ‘-룩(look)’ - 빈티지룩, 핑크룩,시스룩

‘백상예술대상’ 김고은, 전신 시스룩 입고 우아하게

(한국일보, 2013. 05. 10)

ㄷ. ‘-테크(tech)’ - 환테크, 시네마테크

a.환을 하락기의 환(換)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2002년 기사: 종합』,중앙일보사, 2002-말뭉치)

b.영화인들은 ‘시네마테크’ 운동을 통한 좋은 영화보기 운동이 공론의 관
료적 대응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문화(92)』,한겨레신문사, 1992-말뭉치)

(19ㄱ)의 ‘-돌(dol)’은 원어 ‘idol(우상)’의 ‘dol(돌)’ 부분이 접미사화되었다. 이는 외래어가 국어에 유입될 때 접미사가 아닌 요소를 접미사로 인식하는 양상이 일어난 것으로 차용 시 ‘아이+돌’로 받아들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이-’를 고유어 ‘아이(兒)’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젊은 가수’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외도 ‘돌’이 ‘운동, 사투리’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생산하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가수’는 ‘운동돌’ 또는 ‘사투리를 쓰는 가수’는 ‘사투리돌’ 등으로 ‘아이돌’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가수’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아이돌들의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게 조어되고 있다.

(19ㄴ)의 ‘-룩(look)’은 영어에서 ‘사물의 모양, 외관’을 의미하는 일부 명사적 용법이 스타일이나 패션의 뜻으로 쓰이게 되자 접사화되어 시스룩, 빈티지룩, 핑크룩, 시크룩 등 패션의 스타일에 따라 어기가 다르게 조어된다.

(19ㄷ)의 ‘-테크(tech)’는 ‘technique’에서 ‘tech-’만을 남기고 절단된 후 형성된 접미사가 한자어 어근 재(財)와 결합한 ‘재테크’는 재무 활동을 의미한다. 국어에서

절단된 ‘테크(tech)-’는 자립성이 없으므로 접미사로 간주한다. 또한 ‘-테크’는 생산성이 높아 파생되어 ‘금테크’, ‘땅테크’ 등 여러 가지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돌, -테크’ 경우 국어에 들어와 절단되어 형태소의 자격을 부여 받은 어휘로 원어에서는 볼 수 없는 접미사 유형이다.

다음 예는 원어에서도 접미사로 쓰이던 요소를 그대로 접미사로 차용하여 국어 안에서 사용되는 경우다.

(20) ㄱ. ‘-어(er)’ - 악(惡)플러, 선(善)플러, 블로거¹³⁾

- a. 이홍기 트위터에 스쿠터 논란 해명 "악플러들 죽자고 달려들어"
(조선일보, 2013. 04. 12)
- b. 동백초등학교 조성준 학생은 최다 '선플러'로 선정돼 울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아이뉴스24, 2013. 05. 18)

ㄴ. ‘-리즘(ism)’ - 귀차니즘, 솔로니즘

학창 시절 방학 때면 집 밖으로 나와 본 적이 드물었던 그였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요즘 인터넷상에 새롭게 나돌고 있는 '귀차니즘'에 해당된다.
(경향신문. 2002. 12. 19)

ㄷ. ‘-리스트(ist)’ - 귀차니스트

주요 활동 무대는 방안. 으레 이들 곁에는 티브이(TV) 리모컨이나 인터넷 게임을 위한 컴퓨터 마우스가 손이 닿을 만 한 거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귀차니스트는 세상과 소통한다.
(경향신문. 2002. 12. 19)

(20ㄱ)의 ‘-어(er)’는 원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어근에 결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악플러’는 ‘상대방의 의견을 비방하는 사람 나타내는 말’로 국립국어원 2004년 『신어』에 형태소 분석하면 악플러([[惡+reply]+-er])¹⁴⁾ 로 ‘악(惡)’은 나쁘다는 한자어를 어기로 보고 ‘답

13) ‘blog +er’ 형태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변하다(reply)’의 앞부분을 절단한 ‘플’과 결합한 뒤 영어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어(er)’가 결합하여 파생어 ‘악(惡)pler(악플러)’로 조어되었다고 보았다. 세 개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로 현대 국어의 외래어의 독특한 조어법을 보여주고 있다.

(20ㄴ)의 ‘-이즘(-ism)’과 (20ㄷ)의 ‘-이스트(ist)’는 원어의 접미사로 쓰이던 원어 용법 그대로 국어에 차용되었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즘’은 ‘주의(主義)’를 뜻하고 ‘-이스트’는 ‘ ~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므로 ‘솔로니즘’, ‘솔로이스트’란 ‘혼자, 단독’의 의미인 ‘solo’가 접미사 ‘-이즘’과 ‘-이스트’에 결합하여 ‘귀찮은 상태’ 또는 ‘귀찮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다음은 외래어 어근에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된 경우이다.¹⁵⁾

(21) ㄱ. ‘-力(력)’

a. 공기처럼 가볍고, 커버력은 완벽하게

(동아일보, 2013. 02. 18)

b. 단식의 2인자 콜롬보는 183의 큰기에 네트 커버력이 뛰어나...

(매일경제, 2001. 07. 22)

ㄴ. ‘-족(族)’

자식없는 딩크족 주말 부부...각기 다른 삶의 스타일, 인테리어도 ‘맞춤’

(국민일보, 2013. 02. 26)

ㄷ. ‘-화(化)’

춘천을 토이시티로 장난감의 도시 이미지화가 곧 창조...

(한국일보, 2013. 05. 30)

(21ㄱ)의 -력(力)’은 한자어 ‘힘력’자로 외래어 어근 ‘커버’와 결합하여 덮을 수 있는 혹은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커버력’이라는 단어를 생성했다. ‘커버력’은 예문 (21ㄱa)에서처럼 여성의 화장품으로 기능을 나타내거나 (21ㄱb)에서처럼 운동경기에서의 상대방의 선수의 공격을 막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15) 이러한 유형을 여기서 다루는 이유는 서론에서 단어 형성 재료로 외래어 어근이나 접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모두 외래어 조어법의 범주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한자어 접두사 + 외래어 어근’,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접미사’의 경우도 외래어 조어법의 범주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21ㄴ)의 ‘-족(族)’은 한자어 ‘겨레 족’자로 ‘어떠한 집단’을 의미한다. ‘딩크족’이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래어 어근 ‘딩크’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어이다. 이 외에도 도시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여피족(yuppier族)’과 조직 내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주체성 없이 로봇처럼 일하는 ‘좀비족(zombie族)’등이 있다. 한자어 접미사 ‘-족(族)’은 이와 같이 외래어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21ㄷ)의 ‘-화(化)’는 ‘될 화’자로 ‘어떤 현상이나 상태로 바뀜’을 의미한다. ‘-화(化)’는 외래어 어근 ‘이미지’와 결합하여 ‘어떠한 이미지가 되었다’는 의미의 ‘이미지화’로 사용된다. 또 외래어 어근 ‘샘플’과 결합하여 ‘물건을 샘플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외래어 어근 ‘콤플렉스’와 결합하여 ‘욕구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이 콤플렉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화(化)’는 ‘과시증화’, ‘페미니즘화’등 사회 현상적 용어와 결합성이 높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접사뿐만 아니라 ‘-주(主)-’, ‘-계(界)’, ‘-초(超)’ 등 한자어가 접사화 되어 외래어 어근과 결합한 사례가 많다. 한 음절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어 특성은 현대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4.2. 접두 파생어

접두사란 어근 앞에 붙어 단어를 형성하는 접사를 말한다. 접두사는 접미사와 달리 여기에 선행하면서 어기의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이 없다.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는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민다는 점에서는 관형사¹⁶⁾와 기능이 동일하지만 관형사는 독립된 단어인 반면 접두사는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접사다.

외래어 접두사는 앞서 살펴 본 접미사에 비해 그 수가 적어서 외래어 접두사를 언급한 논문도 많지 않다. 그 중 외래어 접두사를 다룬 논문으로 박정순(2003), 전명미(2005), 강나탈리야(2008), 김윤화(2010)이 있다. 박정순(2003)에서는 ‘슈퍼-’와 ‘사이버-’를, 전명미(2005)에서는 ‘넷-’과 ‘사이버-’를 강나탈리야(2008)에서는 외래어

16) 한길(2006:89)에 따르면, 접두사와 관형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접두사는 관형사에 비해 그 분포가 매우 한정되며 관형사는 대부분의 체언과 통합될 수 있어 분포에 제약이 적으며 체언 앞에서 통합된다. 그리고 관형사는 자립적이다.

접두사로 ‘미니-’와 ‘슈퍼-’를 김윤화(2010)에서는 ‘미니-’, ‘사이버-’, ‘멀티-’, ‘슈퍼-’를 접두사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외래어 접두사는 접두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노명희(2011)는 박정순(2003)에서 제시한 접두사 ‘슈퍼’를 ‘대단한, 뛰어난’ 등을 뜻하면서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¹⁷⁾ 규정하고 있다. 강나탈리야(2008)에서 제시한 ‘미니’는 ‘미니 증기 기관차, 미니 불박이 옷장, 미니 유소년 축구’와 같이 사이에 다른 단어가 삽입되므로 접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윤화(2010)에서 제시한 ‘멀티’도 ‘멀티 화상 채팅’과 같이 둘 사이의 분리가 가능하여 국어에서 접차 단어로서의 지위를 얻고 있으므로 독립된 단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정순(2003), 전명미(2005), 김유화(2010)에서는 ‘사이버’를 접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틱’¹⁸⁾의 경우 사이버를 접사로 보았을 때 접사끼리 결합한 단어가 형성되는 이상한 결론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고에서는 ‘사이버’를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는다¹⁹⁾. 전명미(2005)에서 제시한 ‘넷’은 이윤미(2005: 57)에서 ‘사이버’와 마찬가지로 비자립적인 ‘맹(盲)’과 결합되므로 어근으로 보았다.

접두사처럼 보이는 외래어도 따지고 보면 접사가 아니며, 여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버, 넷, 미니, 슈퍼, 멀티’ 같은 경우 어근 또는 접두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법적 지위를 접두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한자어 접두사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외래어 접두사의 적정 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한자어를 외래어로 보자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외래어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와 가까워 외래어 접두사 선정에 한자어 접두사 선정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자어 접두사의 설정기준을 제시한 최윤곤(1999)과 안소진(2003)을 살펴보자. 먼저 최윤곤(1999)에서 한자어 접두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7) 슈퍼 규제 장치, 슈퍼 내각을 구성하다, 슈퍼 대의원등의 예가 신어자료집에서 ‘슈퍼’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보았다(노명희 2012: 55).

18) 본고에서는 접미사 예문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틱(tic)’은 노명희(2009:79)에서 접미사로 인정하고 있다.

19) ‘슈퍼’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슈퍼맨, 슈퍼스타’ 등처럼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접두사용법으로도 쓰인다.

(22) 한자어 접두사 기준 (최윤곤 1999: 26)

- ㄱ. 한자의 본래의 의미적 유연성을 상실한다.
- ㄴ. 어근과 생산적으로 결합한다.
- ㄷ. 관형사에 비해 그 분포와 수식 범위의 차이가 있다.
- ㄹ. 어근으로 변화할 수 있다.
- ㅁ. 다른 형태소와 대치가 어렵다.

(23) 한자어 접두사 기준 (안소진 2003: 23)

- ㄱ. 한자어 접두사는 한자 본래의 쓰임과 의미 유연성이 없어야 한다.
- ㄴ. 한자어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위치하면서 전체 구성에서 주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한자어 요소이어야 한다.
- ㄷ. 한자어 접두사는 구 구성을 수식할 수 없어야 한다.
- ㅁ. 한자어 접두사는 다수의 고유어와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 최윤곤(1999), 안소진(2003)의 공통적인 견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접두사는 자립성이 없어야 한다. 둘째, 접두사는 의미변화를 거쳐야 한다. 셋째, 접두사는 항상 실질형태소와 결합하여야 한다. 넷째, 접두사는 관형사와 차이를 두기 위해 수식의 범위가 바로 뒤에 결합된 어기에 국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접두사는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잇(it)-’, ‘풀(full)-’만을 외래어 접두사로 인정하고 외래어 어근과 결합하는 한자어 접사로는 ‘滿(만)-’, ‘光(광)-’, ‘急(급)-’, ‘得(득)-’, ‘저(低)-’, ‘고(高)-’, ‘대(대)-’를 제시하였다. 다음을 살펴보자.

(24) ㄱ. ‘잇(it)-’ - 잇아이템, 잇걸, 잇백, 잇스타일

오락가락 봄 날씨, 스타가 선택한 잇아이템은? ‘꽃야상’
(한경닷컴 bnt뉴스, 2013. 04. 27)

- ㄴ. ‘풀(full)-’ - 풀가동, 풀메이크업, 풀업, 풀스윙,
퍼거슨, ‘아스널정도 주전 풀가동’
(스포탈코리아, 2013. 04. 27)

(24ㄱ)의 ‘잇걸(it girl)’이란 원어의 의미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을 뜻하는 말로 속어에 속한다. ‘잇걸’은 네이버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반면 ‘잇백’은 등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잇(it)-’은 ‘잇걸’에서 접두사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it’이란 영어에서 대명사 ‘그것’을 뜻하지만 국어로 차용되어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유행’ 또는 ‘감각적인’등의 의미로 새로운 신조어를 생성하였다. 그 예로 유행하는 가방을 의미하는 ‘잇백’과 감각있는 스타일을 의미하는 ‘잇스타일’이 있다.

(24ㄴ)의 원어 ‘풀(full)’은 ‘가득 차다’라는 형용사로 쓰였는데 외래어 ‘풀-’은 접두사로 어떤 어휘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풀가동’의 경우 사람이나 기계 따위를 하루 종일 사용한다는 뜻으로 ‘풀’은 ‘계속해서’라는 의미로 쓰인다. 또한 ‘풀메이크업’의 경우의 ‘풀’은 ‘완벽한’으로 사용되며 ‘풀스윙, 풀업’의 ‘풀’은 ‘최대치’라는 의미로 쓰인다. 무엇보다 사전에서 ‘풀가동’은 파생어로 분류되며 ‘가동’이 ‘풀-’보다 상위어로 지정 되어있으므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은 한자어 접두사가 외래어 어근과 결합한 예이다.

(25) ㄱ. ‘滿(만)-’

이승기 애교 만렙 ‘구가의서 본격등장으로 강치 앓이 예고’
(매일경제, 2013. 04. 11)

ㄴ. ‘光(광)’ - 광랜, 광디스크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버아파트는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광랜을 연결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월간중앙 5월호』, 중앙일보 J&P, 2000-말뭉치)

ㄷ. ‘急(급)-’

급커브를 튼 택시가 어디론가 쏜살같이 방향을 바꿔 달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조경란,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 문학과지성사, 2001)

ㄹ. ‘得(득)-’

신세계 “세일 속 세일 노려 최대 70% 싼 물건 득템하세요”

(아시아경제, 2013. 04. 08)

ㄱ. ‘저(低)-’, ‘고(高)-’ - 저칼로리, 고칼로리, 저알코올

a. 저칼로리의 야채를 곁들임으로 듬뿍 사용하면 고기 자체의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

(『라벨르 9월호, (98)』, 중앙일보사, 1998-말뭉치)

b. 가령 당질은 1그램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내는 고칼로리 물질이다.

(이상중, 『중년기 건강크리닉』, 도서출판 장락, 1994-말뭉치)

ㄴ. ‘大(대)-’

a. 우리 연예계에 대스타가 드문 현상도 이런 흐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주간경향』, 경향신문사, 1994-말뭉치)

b. 작년에 대히트를 한 「에너곤 위즈」의 속편이었다.

(신장현, 『세상 밖으로 난 다리』, 문학과지성사, 2001-말뭉치)

(25ㄱ)의 ‘가득찰 만(滿)’자를 사용한 ‘만렙’이란 가득찬 레벨의 줄임말로 최고의 레벨을 뜻하는 게임 용어이다. (25ㄴ)의 ‘광-’은 ‘빛 광(光)’자로 ‘빛처럼 빠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인터넷 속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한다. (25ㄷ)의 ‘급-’은 ‘급할 급’자로 ‘갑자기’라는 의미로 ‘급커브’란 ‘길이나 선 따위가 급격하게 굽은 부분’을 의미한다.

(25ㄹ)의 ‘득-’은 ‘얻을 득’자로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득템’이란 얻을 ‘득(得)’과 ‘아이템’의 ‘템’자가 결합한 뒤 약어화되어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얻다’라는 의미의 새로운 신조어가 생성되었다. 이 단어는 게임상에서 쓰이던 용어가 실생활에서까지 쓰이게 된 경우로 실생활에서 좋은 물건을 샀을 경우나 좋은 물건을 얻을 경우에 서술어 ‘하다’와 결합하여 ‘득템하다’라고 조어된다.

(25ㄱ)의 ‘저-’와 ‘고-’는 서로 반대말로 ‘낮고 높음’을 의미한다. 외래어 어근 중 열량의 단위인 ‘칼로리’와 결합하여 높은 열량을 의미하는 ‘고칼로리’, 낮은 열량을 의미하는 ‘저칼로리’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저-’와 ‘고-’는 고유어 어근과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에 비해 외래어와 결합하는 양상은 많다.

(25ㄴ)의 ‘대(大)-’는 ‘거물(巨物)’이라는 의미로 외래어 어근 ‘스타’와 결합하여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의미의 ‘대스타’로 사용된다. 또 ‘대-’는 ‘많이, 크게, 매우’라는 의미로 ‘홍행하다’라는 의미의 외래어 어근 ‘히트’와 결합하여 ‘대히트’로 사용된다. 한편 ‘대(大)’하면 떠오르는 한자어 ‘중(中);’소(小)’의 경우는 외래어 어근과 결합하는 사례가 없는 점이 특이하다.

위의 ‘만렙’, ‘득템’과 같은 신조어의 범람은 세대 간에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언어의 장벽과 소통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 국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권위를 거부하는 신세대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단어들이 결합하고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외래어의 의미변이

외래어가 국어의 어휘 체계 속에 동화·토착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외래어끼리 서로 의미가 충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의미적으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며 국어 사용자에게 의해 선택받는다. 이러한 의미 충돌의 결과 외래어가 고유어와 공존하며 경쟁을 계속 하기도 하고, 고유어와 외래어 가운데 한 쪽이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기도 한다. 또 의미 충돌 후 의미 합류와 의미 분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의미 영역이 바뀌기도 한다(임지룡 2008: 145).

외래어가 기존 어휘 체계 속에 들어오면서 의미 상호간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 서로 의미 경쟁을 하거나 분화하면서 새로운 의미 질서가 형성된다. 따라서 의미변이를 고찰할 때는 외래어의 원어 의미가 외래어화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중심으로 원어 의미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의미 영역의 변이를 원어의 의미 중 일부분만 사용 되면 ‘축소’, 원어의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 ‘이동’으로 분류하여 의미변이를 용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1. 축소

의미의 축소란 특정 어휘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을 말한다.

천시권·김종택(1973:217)에서는 한 낱말이 차용되는 경우에 그것이 가진 전체 의미가 그대로 차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의미로 특수화된 모양으로 차용된다고 했다. 그 예로 독일어 ‘Arbeit’는 ‘일, 공부, 작품, 연구, 과제, 일자리, 솜씨, 재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국어에 차용되어 ‘일자리’ 나 ‘부업’의 뜻으로만 차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의미 축소는 외래어가 원어로 사용될 때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서 주로 어느 한 가지만 정착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26) ‘글러브(glove)’

ㄱ. 겨울엔 목도리와 장갑을 꼭 챙긴다.

(『라벨르 9월호, (98)』, 중앙일보사, 1998-말뭉치)

ㄱ'. 겨울엔 목도리와 *글러브를 꼭 챙긴다.

ㄴ. 체육복을 입고 모두 일어서서 몸 풀기 체조를 하는 동안 교탁 위에 놓인 권투글러브 두 벌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강영숙, 『날마다 축제』, (주)창비, 2004-말뭉치)

ㄴ'. 체육복을 입고 모두 일어서서 몸 풀기 체조를 하는 동안 교탁 위에 놓인 권투장갑 두 벌에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ㄷ. 마치 두터운 털장갑을 끼고 있을 때의 느낌 같은 포근한 감촉이 내 뼈투성이 손가락의 말초신경으로 전해져 왔다.

(마광수, 『권태』, 문학사상사, 1990-말뭉치)

ㄷ'. 마치 두터운 *털글러브을 끼고 있을 때의 느낌 같은 포근한 감촉이 내 뼈투성이 손가락의 말초신경으로 전해져 왔다.

(27) ‘히트(hit)’

ㄱ. 완전한 히트작품이었다.

(조환규, 『컴퓨터 이야기』, 창작과 비평사, 1992-말뭉치)

ㄱ'. 완전한 홍행작품이었다.

ㄱ. 완전한 성공작품이었다.

ㄴ. 전국 7용 중에서 진나라만이 개혁에 성공하였다.

(『월간중앙 1월호』, 중앙일보 J&P, 2000-말뭉치)

ㄴ'. 전국 7용 중에서 진나라만이 개혁에 *히트하였다.

ㄴ''. 전국 7용 중에서 진나라만이 개혁에 *홍행하였다.

ㄷ. 홍행대작인 ‘공동경비구역JSA’ DVD의 판매를 2배가량 웃돌았다. 이처럼 극장 홍행에서는 부진했지만 DVD로 나와 판매에 성공한 최신 타이틀로는 ‘공각기동대’ ‘아멜리에’ ‘촉산전’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 2002-말뭉치)

ㄷ'. *히트대작인 ‘공동경비구역JSA’ DVD의 판매를 2배가량 웃돌았다. 이처럼 극장 *히트에서는 부진했지만 DVD로 나와 판매에 성공한 최신 타이틀로는 ‘공각기동대’ ‘아멜리에’ ‘촉산전’

ㄷ''. *성공대작인 ‘공동경비구역JSA’ DVD의 판매를 2배가량 웃돌았다. 이처럼 극장 *성공에서는 부진했지만 DVD로 나와 판매에 성공한 최신 타이틀로는 ‘공각기동대’ ‘아멜리에’ ‘촉산전’

(28) ‘글라스(glass)’

ㄱ. 이미지를 위해 건배하지."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자 서로 글라스를 세웠다. 맥주와 사이다였다. 맥주편이 많았다. "이미리 양의 영광을 ...

(구인환, 문학사상사, 1992-말뭉치)

ㄴ. E 는 얼음만 남은 글라스에 술을 따랐다.

(한강, 『그대의 차가운 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2.)

(29) ‘스터디(study)’

ㄱ.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문학 스터디를 만들어 같이 공부했다.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국어국문학과), 전자파일,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말뭉치)

ㄱ'. 언니도 스터디해요?

(마이너리그, 형태소 분석 전자파일-말뭉치)

(30) ‘피크닉(picnic)’

ㄱ. 각 급 학교에서 가을 소풍을 가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교육 중등용 10월호』, 우리교육, 1994-말뭉치)

ㄱ'. 각 급 학교에서 가을 피크닉을 가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ㄴ. 풀밭에서 치즈와 포도와 빵과 사과와 붉은 포도주를 가지고 피크닉을 즐기는 그들…

(안정효, 『헐리우드키드의 생애』, 민족과문학사, 1992-말뭉치)

ㄴ'. 풀밭에서 치즈와 포도와 빵과 사과와 붉은 포도주를 가지고 소풍을 즐기는 그들…

ㄷ. 걸어서는 도저히 자기 교구를 떠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안식일에 낚시질을 한다든지, 여자 친구와 피크닉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어령,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문학사상, 2003-말뭉치)

ㄷ'. 걸어서는 도저히 자기 교구를 떠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안식일에 낚시질을 한다든지, 여자 친구와 소풍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26)의 원어에서 ‘글러브(glove)’의 본래 ‘운동할 때 끼는 장갑’, ‘패션 장갑’ 등 손에 끼는 모든 장갑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글러브’는 주로 ‘운동할 때 끼는 장갑’이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운동할 때 끼는 장갑’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근거로 (26ㄱ)처럼 ‘목도리’와 대등한 맥락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털장갑’과 달리 (26ㄷ)의 ‘털’과 결합한 복합어를 형성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다.

(27)의 원어에서 ‘히트(hit)’의 사전적 의미는 동사의 용법으로는 ‘때리다’, ‘치다’를 의미하고 명사의 용법으로는 ‘명중’, ‘적중’, ‘타격’, ‘성공’, ‘들어맞음’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외래어로 차용된 ‘히트’는 ‘세상에 내놓거나 발표한 것이 크게

인기를 얻음'이라는 뜻으로 차용 과정에서 '홍행' 또는 '성공'의 의미만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ㄱ)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히트'는 '홍행', '성공'과 동의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7ㄴ)과 (27ㄷ)의 예문에서 '홍행'과 '성공'이 '히트'로 대체되었을 때 문맥에서 의미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히트'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 차용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의 '글라스(glass)'는 원어에서 '유리로 만든 그릇이나 렌즈' 등 유리 제품의 통칭으로 쓰이고 영어로 사용될 때 복수형으로는 '안경'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28ㄴ)에서 볼 수 있듯이 국어에서 '글라스'는 유리 제품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래어로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9)의 '스터디(study)'는 원어에서 '공부', '학습', '학문'과 '공부하다', '학습하다', '학문하다' 이런 명사의 용법과 동사의 용법 모두를 가지고 있다. 국어로 차용되었을 때는 (30ㄴ)의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스터디'는 서술어 '하다'와 결합하므로 명사적 용법만 차용되었고 그 중에서도 의미가 '모듬학습'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된다.

(26)-(29)의 경우는 국어 안에서 외래어가 원어로 사용될 때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의 의미 자질 중에서 일부의 의미만 정착되는 경우를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30)의 원어 '피크닉(picnic)'은 외래어로 차용되어 문맥상에 화자의 관점²⁰⁾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국어에 차용될 때는 '소풍'의 의미로 차용되었지만 한자어 '소풍'과 달리 (30ㄱ)의 예문을 보면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나 '학생', '학교'와 같은 단어들과 연어 관계를 이루었을 때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0ㄷ)의 말뭉치 예문을 살펴보면 '소풍'은 서술어 '하다'와 결합하지 못하고 '피크닉'은 서술어 '가다'와 '하다' 모두 결합함을 보인다. 하지만 사전에는 '소풍하다'로 단어로

20) 말하는 사람의 개념의 변화에 의해서 외래어의 의미변이가 오는 이유를 Pavlou(1993)에서는 모든 단어는 눈에 보이는 요소와 볼 수 없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보통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 속에 지시물에 대한 영상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최명숙 1997: 30 재인용).

Poruciuc(1991)에서는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언어를 지배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최명숙 1997: 49 재인용).

등재되어 있다. 이는 ‘소풍하다’가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소풍하다’로 사용하지 않고 ‘소풍가다’로 조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피크닉’은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는 ‘피크닉’이 국어안에서 위치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2. 이동

외래어 차용과정에서 의미의 이동이란 기존의 원어에서의 의미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의미영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어휘장에 새로운 어휘가 대치되는 것과 더불어 의미적 구조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의미이동에서 Ullmann(1962, 1972)은 의미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로 명칭간의 유사에 의한 것과 명칭간의 인접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의미의 변이는 명칭간의 관계에 의한 변이뿐만이 아니라 명칭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의미의 변이가 일어나므로 두 어휘의 의미간의 유사나 의미간의 인접에 의해서도 의미의 변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²¹⁾

다음은 외래어가 국어로 차용된 후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이다. 즉, 본래 원어에는 없는 의미를 외래어가 새롭게 획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31) ㄱ. ‘티오(T.O.)’

대리 말기에 지점에서 본사, 그것도 좋은 부서라는 인수영업부, 국제금융팀으로 옮겨간 대가로 T.O.에 밀려 두 번째 탈락을 했고, 거기까지는 수궁하고 있었다.

(이명훈, 『꼭두의 사랑』, (주)문학사상, 2004.-말뭉치)

ㄴ. ‘오바이트(overeat)’

전형무 “낮술 먹고 국장 무릎에 오바이트해” 경악

(일간스포츠, 2011. 12. 14)

ㄷ. ‘스펙(specification)’

언제부터인가 취업 준비생들은 출신 학교와 학점, 토익 점수와 자격증 소지여부, 그리고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 유무 등을 종합해 ‘스펙’이란 두 글자로 줄여 부르고 있다. 대학 시절 동안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스펙인 셈이다.

(뉴스메이커. 2004. 12. 10.)

ㄹ. ‘솔로(solo)’

애인 없는 솔로들, 내놓은 자식들을 위한 주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민해연, 『오디션』, 서울: 영언문화사, 2001.-말뭉치)

ㄱ. ‘워커(walker)’

탄띠에 매단 물통, 축도 5만분의 1 지도, 거기애다 ‘워커’까지 신었으니 “충만 안 든 간첩으로” 보일 만도 했다.

(우리교육 편집부, 『우리교육 중등용 10월호』, 1994.-말뭉치)

(31ㄱ)의 ‘T(Table of).O(organization)’는 영어사전에 ‘조직표’, ‘기구표’, ‘편제표’로 표기되어있지만 국어사전에 ‘티오’는 ‘정원(定員)’으로 표기되어 있다. 말뭉치 예문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티오’는 ‘조직표’, ‘기구표’, ‘편제표’라는 의미에서 ‘정원’으로 의미가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ㄴ)의 ‘overeat’는 ‘over’과 ‘eat’의 합성어로 원어에서는 ‘과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어 안에서는 단일어로 ‘구토’의 뜻으로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과식을 하면 토하기 쉽기 때문에 ‘과식’을 의미하는 ‘오바이트’가 ‘구토’가 되어 ‘오바이트한다’고 말하면 ‘토한다’는 뜻이 되었다(안정효 2000: 492).

(31ㄷ)‘스펙(specification)’은 원어에서 ‘설명서’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국어 안에서는 ‘학벌, 자격증, 외모’ 등을 전부 포함한 ‘취업자들의 능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31ㄹ)의 ‘솔로(solo)’의 원어에서 ‘독주’, ‘독창’, ‘단독비행’, ‘독무’를 뜻한다. 외래어 ‘솔로’ 또한 국어사전에는 ‘독창이나 독주. 또는 관현악의 어떤 부분을 단독의

주자(奏者)가 연주하는 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말뚝치 예문을 살펴 본 결과 '독신(single)'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솔로'를 '독신'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의미가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ㄷ)의 '워커(walker)'의 원어에서 '보행자, 산책하는 사람, 수행원'이지만 외래어 '워커'의 사전적 의미는 '군화'를 뜻한다. 영어에서의 '군화'는 'boots'이지 'walker'가 아니므로 '워커'는 '보행자, 산책하는 사람, 수행원'에서 '군화'로 의미가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²²⁾

이와 같이 의미의 이동이 의미의 축소와 다른 점은 의미의 축소가 기존의 의미를 그대로 지닌 채 의미 영역의 변이를 가져오는 반면에 의미의 이동은 기존의 의미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의미 영역의 변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어휘장에 새로운 어휘가 대치됨으로써 의미적 구조의 재구성이 일어나 의미의 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최명숙 1997: 49).

외래어 의미 이동의 경우 국어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기는 매우 힘들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외래어 의미가 이동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2) 안정효(2000: 511)는 한국전쟁 무렵 군화를 '워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현대 국어에 차용된 외래어 조어법과 외래어 의미 변이의 특성을 말뭉치와 신문 예문 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에 사용된 외래어들은 대부분 신어이거나 신어 목록에 아직 등재되지 않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인터넷 어휘 또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어나 인터넷 어휘 경우 말뭉치에서 그 용례가 검색되지 않아 신문이나 인터넷상에서 예문을 찾아 밝혔다.

제2장에서는 외래어 의미 변이와 조어법을 논하기 전에 외래어의 조건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외래어란 귀화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귀화과정이란 발음 변화, 표기 형태 변화, 의미변화, 사용 빈도를 말한다.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국어에 동화되어 비로소 외래어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폭 넓은 외래어 연구를 위해 노명희(2008)의 논문에 입각하여 국어 어휘체계를 고유어와 중국 문어를 통해 유입되어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을 한자어, 원어 발음대로 읽은 것을 외래어로 분류하고, 외래어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한번이라도 사용했다면 잠정적 외래어로 보았다. 즉,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지 않고 모두 외래어로 간주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래가 국어 어휘 체계에 맞춰 조어되는 양상을 ‘절단어’, ‘약어’, ‘합성’, ‘파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단어’는 다시 첫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로 분류하였다. 첫 부분 절단어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사전 처리 방식에 따라 ‘타이, 베이스, 마이신’과 ‘콧, 키피, 힐, 폰’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끝부분 절단어는 음절수에 따라 ‘아마, 다운, 프로, 아나’와 ‘다큐, 내비, 프로, 업글, 데코, 다이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부분 절단어와 끝부분 절단어 모두 절단되기 이전에는 4-5음절인 어휘가 대부분 2음절로 절단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어의 명사가 대부분 2음절로 외래어 또한 2음절로 안정성을 얻어 단어의 자격을 갖는데 무리가 없게 절단된 것으로 보았다.

‘약어’란 어떤 말에서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한 음절만을 따서 결합하는 단어를 말한다. 그 예로 ‘셀카, 맨유, 베프, 카톡, 페북, 개콘, 뮤비’가 있다. 이는 국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간소화하여 사용하려는 현대국어의 경향이 외래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합성’은 ‘통사적 합성어’를 중심으로 ‘외래어 어근 +외래어 어근’,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고유어 어근 + 외래어 어근’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생’은 접미 파생, 접두 파생으로 나누고 외래어 접사의 기준을 설정하여 외래어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한자어 접사와 외래어 어근이 결합한 유형의 파생어를 살펴보았다. 외래어 접미사는 국어에 차용되어 접사화된 ‘-돌, -룩, -테크’와 원어에서 접사 그대로 차용한 ‘-어, -이즘, -이스트’로 나누어 분석하고 한자어 접미사는 ‘-력, -족, -화’를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외래어 접두사로는 ‘잇-, 풀-’을 제시하고 한자어 접두사로는 ‘만-, 광-, 급-, 득-, 저-, 고-, 대-’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어는 파생어보다는 합성어로 더 많이 조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외래어 접미사는 그 용례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에 외래어 접두사는 두 개 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자어 접사는 그 용례가 많고 외래어 어근과의 결합력이 높았다.

파생어에서 외래어 접사는 많이 발견할 수 없었지만 한자어 접사의 경우 외래어 어근과 활발히 결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인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경제성 성향이 1음절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자어의 특성과 맞아 앞으로는 많은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하는 파생어가 꾸준히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조어법 특징으로 살펴볼 때 외래어는 국어의 형태적인 특징을 띤다. 외래어를 차용할 때는 외래어 자체의 어법적, 문법적 기능을 무시하고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차용하려는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용한 외래어가 명사든 동사든 우리말 속에 섞여서 국어의 일부로서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래어의 의미적 특성을 의미 범주별 특성을 고려하여 ‘축소’, ‘이동’으로 분류하여 구체적 용례와 함께 그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의미의 축소’는 원어의 의미가 외래어화되면서 본래의 여러 의미 중 일부분의 의미만 차용되어 사용함을 말한다. 의미의 축소의 경우 실제적인 언어 사용 실태와 변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외래어와 고유어 동의어, 외래어와 한자어 동의어에 해당하는 예문을 대치하여 살펴보았다. ‘의미의 이동’은 외래어가 원어에서 가지고 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국어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티오, 오바이트, 스펙, 솔로, 워커’가 그 예이다.

외래어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국과의 접촉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 및 문물과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래어가 국어의 언어 체계 속에서 동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용 요인에도 불구하고 어휘

의미적 영역의 차별화 양상에 따라 그 정착과 쓰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외래어가 국어로 차용되면서 조어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변이된 현상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러나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국어 의미면과 조어적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오늘날 외국과의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어에 외래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에 관한 음운론적, 의미론적, 형태론적 측면에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나탈리아(2008), 외래어 요소가 참여한 한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돈목(1984), 한국어 접두사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범모(2003), 『외국의 코퍼스 언어학 연구 현황』, 박이정
- 강신항(1988), 한자어 사용의 현실과 처리 문제, 『국어생활』 14, 국립국어원, pp.14~24.
- 고려대학교(2009), 『고려대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 고영근(1989), 파생접사의 분석 한계, 『어학연구』 25,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pp.97~110.
- 구본관·오현아(2011),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어 교육적 고찰,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pp.1~37.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외래어, 『한국어 연구 교재』, 국립국어연구원, pp.113~123.
- _____ (1999), 『표준 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 _____ (2004), 『신어』, 국립국어원.
- 기주연(1991), 근대국어의 파생어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곤(1988), 조어법-한힌샘 주시경에 대한 연구-, 『한힌샘주시경연구』 1, 한글학회, pp.45~67.
- 김광해(1989),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미라(2003), 영어 외래어 연구 형태 음운 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수(1973),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봉주(1984), 『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세중(1992), 신문광고와 외래어, 『새국어생활』 2, 국립국어원, pp.50~64.
- _____ (1998), 외래어의 개념과 변천사, 『새국어생활』 8, 국립국어연구원, pp.5~19.
- 김영선(1999), 한국어의 외래어 차용, 『한국어 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pp.119~154.

김윤화(2009), 현대 국어의 신어 형성 양상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은(2007), 경상도 화자의 영어 차용어 모음 삽입현상과 귀착화,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1997), 언어 의식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해(2006), 코퍼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어미학』 21, 한국어어미학회, pp.75~104.

김희영(1999), 현대 국어의 신어 형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진(1995), 약어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23, 한국어문 교육 연구회, pp.91~111.

김혜숙(1977), 변화속의 언어, 『사회언어학』 5, 사회언어학회, pp.131~162.

남기심·고영근(2008),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성우(1988), 『국어의미론』, 영언문화사.

노명희(2004),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 pp.123~151.

_____ (2009), 외래어 단어형성, 『국어국문학』 153, 국어국문학회, pp.5~29.

_____ (2011), 현대국어 이종 어휘의 유의적 공존 양상, 『어문연구』 39,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pp.33~62.

_____ (2012), 외래어 차용의 형태론적 양상, 『반교어문연구』 33, 반교어문학회, pp.35~68.

마성식(1987), 국어 의미변화 원인과 유형설정을 위한 연구,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3, 한남어문학, pp.97~816.

박영순(1994), 『한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박용찬(2003), 준말의 형성, 『현대 국어의 준말 목록』, 국립국어연구원.

박정순(2003), 신어의 형성 양상과 특성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어휘 연구, 『한국어와 문화』 8, 숙명여자대학 한국어문화연구소, pp.95~115.

박지현(2008), 한국어와 영어 차용어의 동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형익(1999),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변시내(2010), 신조어의 조어법과 한국어 교수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재극(1970), 개화기 외래어와 신용어, 『동서문화』 4, 계명대인문과학연구소, pp.73~120.
- 서종학·김주필(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 연구-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 석주연(1995), 근대국어 파생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정(2007), 한국어 외래어의 의미 변이 연구 일상생활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시사영어사 편집부(2001), 『랜덤 영한 대사전』, 와이비엠.
- 심재기외5명(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교양.
- 시정곤(2005), 말 다듬기와 조어법, 『새국어생활』 15, 국립국어원, pp.135~143.
- 안소진(2004), 한자어 접두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정호(2000), 『가짜영어사전』, 현암사.
- 양명희(2005), 국민언어의식조사, 국립국어원.
- 양민호(2011), 외래어의 인지 이해 사용률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 『국제학논총』 15,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 pp.55~77.
- 양주동·유목상(1969), 『문법』, 대동문화사.
- 여찬영(1982), 국어 접사에 대하여, 『대구카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24, 카톨릭대교, pp.23~39.
- 오미정·이혜용(2007), 한국어 외래어 교육과 교재 개발, 『한국어의미학』 23, 한국어 의미학회, pp.23~75.
- 우민섭(1988), 약어의 한 고찰, 『어문논집』 9, 중앙대학교, pp.69~79.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관규(2002), 『개정판 학교 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광호(1998),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pp.519~542.
- 이덕호(1980), 언어차용에 관한 연구1, 『한글』, 한글학회, pp.221~261.
- 이상복(1992), 국어의 조어법 연구, 『한글』 44, 한글학회, pp.81~124.
- 이석주(1988), 국어 약어형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논문집』 12, 한성대학교, pp.123~151.
- 이승명(1982), 외래어 수용 양태에 대한 어휘 의미론적 연구, 『수련어문론집』 9,

- 부산여자대학교, pp.9~40.
- _____ (1998), 『의미론 연구의 새방향』, 박이정.
- 이익섭·임홍빈(1998),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윤미(2005), 생성어휘론에서의 영어어휘 의미구조,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언어의 이해』, 월인.
- _____ (2008), 외래어 순화 정책의 방향, 『어문학』 99, 한국어문학회, pp.27~66.
- 이종열(1998), 현대 국어 동의어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0), 동의어 인지구조와 의미적 비대칭성, 『언어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pp.257~280.
- 이주희(2005), 영어 차용어의 배경과 어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규(1989), 외래어의 의미충돌에 관한 연구, 『어문논집』 21, 중앙어문학회, pp.117~132.
- 이현희(2006), 국어접사 범주에 관한 연구 -접사와 인접 범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흥식(2001),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23, 카톨릭대학교, pp.123~148.
- _____ (2004), 외래어 동사의 논항 구조, 『언어과학연구』 31, 언어과학회, pp.229~246.
- 이희승(1941), 외래어 이야기, 『춘추』 2, 조선춘추사, pp. 258~273.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 국립국어원, pp. 5~32.
- 임해순 외 4명(1995), 통사변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 『언어학』 17, 한국언어학회, pp.265~266.
- 장혜연(2007), 신어의 조어 방식과 특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미(2005), 현대국어 신어 형성 양상에 대하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명미·최동주(2007), 신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한민족어문학』 50, 한민족어, pp.237~255.
- 정인상(1992), 국어의 조어법에 대한 연구, 『인문학지』 6, 충북대학교 인문연구소,

pp.19~57.

정인승(1970), 『표준문법』, 계몽사.

정종태(1994), 현대국어 동의어의 의미론적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희원(2000), 외래어 표기법, 『국어문화학교』 1, 국립국어연구원, pp.119~210.

_____(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원, pp.5~22.

조남현(1992), 언어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준학 외3명(1981), 한국인의 언어의식, 『어학연구』 17,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pp.167~197.

조태린(2010),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사회언어학』 18, 한국사회언어학회, pp.189~214.

천시권·김종택(1972), 『국어의미론』, 형설.

최명숙(1997), 영어 외래어의 어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윤곤(1999), 현대 국어 한자어 파생법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최현배(1987), 『우리말본』, 정음사.

최영(2010), 한국식 영어의 형성 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길(2006),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역락.

한만수(1982), 『영어학』, 한신문화사.

허웅(1983), 『우리말의 오늘 어제』, 샘문화사.

Hockett, C.F.(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The Macmillan Company.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yrop, K.(1913), Grammaire Historique de la Langue Francaise, IV, Semantique, Copenhagen.

Jespersen, O.(1954),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Pavlou, P.Y.(1993), The Semantic Adaptation of Turkish Loanwords in Cypriot-Greek.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k Linguistics.

- Poruciuc, A.(1991), Folk Etymology in English and Elsewhere. Kans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 vol. 16.*
- Poplack, S, D. Sankoff and C. Miller.(1988), The Social Correlates and Linguistic Processes of Lexical Borrowing and Assimilation. Linguistics 26: 47~104.*
- Ullmann, S.(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Basil Blackwell.*

(국문요약)

국어의 외래어 조어법과 의미변이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지혜

지도교수: 석주연

오늘날처럼 국제 교류가 활발하여지고 과학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에 언어 접촉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외래어 차용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어 어휘 체계 속에서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국어의 어휘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래어 차용어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 차용된 국어 외래어를 중심으로 외래어의 조어법상 특징과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 안의 외래어가 원어와 달리 국어 안에서 어떤 의미로 변이되어 사용되고 있는지도 고찰했다.

제2장에서는 외래어의 조건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폭넓은 외래어 연구를 위해 외래어의 범위를 ‘광의의 개념’으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 짓지 않고 모두 외래어로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래가 국어 어휘 체계에 맞춰 조어되는 양상을 ‘절단어’, ‘약어’, ‘합성’, ‘파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절단어’는 다시 첫 부분 절단어, 끝 부분 절단어로 분류하였다. ‘약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형태소 경계에서 한 음절만을 따서 결합하는 단어를 살펴보았다. ‘합성’은 ‘외래어 어근 + 외래어 어근’, ‘한자어 어근 + 외래어 어근’, ‘고유어 어근 + 외래어 어근’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파생’은 ‘접미 파생’, ‘접두 파생’으로 나누고 외래어 접사의 기준을 설정하여 외래어 접사와 결합한 유형과 한자어 접사와 외래어 어근이 결합한 유형의 파생어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외래어의 의미변이를 원어의 의미가 외래어화 되면서 본래의 여러 의미 중 일부분의 의미만 차용된 ‘축소’와 원어에서 가지고 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국어에서 사용된 ‘이동’으로 분류하여 구체적 용례와 함께 그 쓰임새를 살펴보았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외래어가 국어로 차용되면서 조어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변이된 현상을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한 기술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국어 안에서 최근 조어된 외래어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미변이 현상도 함께 고찰하여 국어 속 외래어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 외국과의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어에 외래어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외래어의 의미론적, 형태론적 측면에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